

송경길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트럼프, 흑인대신 이민자 왕따 노린다

미국 백인 저소득층의 분노 이민자에 돌리고 부자감세 등 추진 노림수

H-1B 비자 관련 행정명령 발동 예정
복지혜택 받은 이민자들 추방도 고려
의회 취업 비자 강화 관련 법안 추진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대 이민자의 구도로 나눠 미국내 가난한 백인들의 분노를 이민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 백인 서민들의 불만을 흑인에게 떠넘겨 왔던 정책과 유사하다.

미국내 VOX와 워싱턴 포스트가 1월 30일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비자 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그러나 아직 메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취임 10일여만에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정책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행정명령으로 본격적인 이민자 혐오 정치의 서막을



29일 카플리 광장에서 열린 반트럼프 이민정책 집회에 참가한 중동 출신 시위자들이 지역과 종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시훈 기자)

열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에는 트럼프행정부 부가 이민자를 인식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의 이민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와 합법적인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그들(이민자)이 보유한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라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숀 스파이서(Sh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의 일환으로 H-1B 비자 제도 개혁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며 행정명령 또는 의회와의 조율을 통해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90일 이내로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면으로 계속

보스톤의 택시 비즈니스 사라질 위기



2월 1일부터 우버, 리프트 등
공항 영업 전면 허용
비싼 택시의 경쟁력 더 악화 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에서의 택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보스톤 지방법원이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공항 영업을 2월 1일부터 전면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보스톤 택시업계는 그동안 우버와 리프트 등의 상당수 승객을 빼앗겨왔었다. 그러나 공항영업이 택시에게만 허용되었던 관계로 그나마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경쟁해 올 수 있었다. 택시업계는 최후의 보루였던 공항영업 독점권마저 내주며 가장 큰 소득원을 잃게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결정은 작년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발의한 ‘운송네트워크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허용 법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1 DAY ONLY **2/4(Sat) 9AM-4PM** **SUPER SALE**

Wow! Really?

하루세일

단 하루, 항공권 통권할인!

특가항공권 가격이 궁금하시죠?
IACE TRAVEL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http://www.iace-travel.com

IACE TRAVEL
항공여행 전문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Dr. Chang Won, DPM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Chronic Pain을
Chronic Pain을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대학까지

FDart 학문광채 단지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3.9773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푸드 스탬프, 매스헬스 혜택 이민자 추방도 추진

▶▶1면에 이어서

행정명령 초안에는 H-1B는 물론이고 OPT, 문화 교류비자인 J-1,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이민비자인 E-2, 등 또한 개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한인사회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H-1B 비자 신청 조건 강화 관련 법안 추진
트럼프의 비자 프로그램 개편 관련 행정명령과 별도로 의회에서도 H-1B 취업 비자 신청 조건 강화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척 그래스리(Chuck Grassley)와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은 지난달 20일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을 제안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표했다. 25일자 CNN보도에 따르면 이 개편안은 노동청이 H-1B 비자 및 L-1 비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를 검토,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로터리 시스템을 없애고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에게 비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조 로프그렌(Zoe Lofgren) 또한 지난 주 H-1B 취업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31일자 PTI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H-1B의 최저 임금인 6만불의 두 배 이상인 13만불을 최저 임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대럴 이사(Darrell Issa)는 1월 초 H-1B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들이 더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도 취업비자의 제한 단축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웰페어 받은 이민자 비자 발급 거부, 추방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초안에는 이민자들이 어떠한 웰페어 혜택이라도 받은 경우 국토안보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하고 있다. 급진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웰페어를 이용한 미국내 이민자들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지어 이 명령은 추방당한 이민자가 사용했던 혜택 비용을 스폰서한 가족 또는 친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류미비자는 비록 자녀들이 시민권자라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게다가 정부는 얼마나 많은 웰페어 혜택이 이민자들에게 쓰였는지 보고 출판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미국출생의 가난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이를 실제적으로 착취하는 부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떠 넘기는 이른바 '왕따' 포퓰리즘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뉴욕 매거진은 이번 행정명령의 숨은 의도는 결코 불법이민자들이나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만이 목표가 아니다. 바로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백인층의 분노를 이민자에게 돌리고 부유층 감세 등 트럼프가 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추진한다는 이 방식은 너무도 잘 알려진 왕따 이론이다. 이 메모가 시행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은?

한인 2세들 일부와 한인 시민권자 일부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결코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라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미국의 왕따로 이민자를 노리고 있다.

실제 H-1B비자의 변경만으로도 한인사회가 직간접적으로 받을 영향은 크다. H-1B의 발급 조건이 강화되고 OPT와 J-1비자가 폐지된다면 미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찾으려던 유학생들 및 연구원들은 설 자리가 없다.

보스턴 올스턴 소재의 한 한인업체는 "H-1B를 통해 고용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높은 비용이 들 경우 H-1B발행을 꺼리게 될 것 같다"고 밝히며 "정 필요할 경우에만 어쩔수 없이 고용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올해 J-1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된 보스턴 소재 회사 재직 중인 한 연구원은 "법이 어떻게 바뀔지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이번 H-1B 비자 신청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O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만약 그도 잘 안될 경우 한국이나 유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학생들의 상당수는 미국에서의 취직까지 바라며 유학길에 오른다. 하지만 졸업 이후 미국 거주가 어려워 진다면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블룸버그 및 CNN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H-1B를 비롯한 다양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들이 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유학생이나 연구원 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미국행이 위축될 수도 있다. 김우재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는 1월 30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행을 심각하게 재고"하라며 유학생들에게 미국행 대신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한인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취업 비자 뿐만 아니라 이미 비자를 받은 한인들도 추방대상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우려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성기주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행보에 대한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고려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미국은 이민 없이는 쉽지 않은 나라다. 아직까진 한국사람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

sun@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해외공관서 무료 발급

경찰청 3월 1일부터 재외공관 발급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 영문으로 된 한국운전경력증명서를 3월 1일부터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1천원이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3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은 보스톤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 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없어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3일에서 6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평균 2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대사관에 제공하는 운전면허 정보에 운전경력정보를 추가해 우리 교민이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 밝혔다.

보스톤총영사관 오진관영사는 “아직까지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은 없다. 실제적인 협조 공문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오영사는 “지금도 민원24시 사이트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영사관 민원실에 배치된 컴퓨터에서 한인들은 A4용지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오영사는 또 “신원을 확인하면 공인인증서를현장에서 발급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 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서부 매사추세츠 영사 순회 업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총영사관은 1월 27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엠허스트 지역 소재 유매스(UMass) 엠허스트 뉴만 센터에서 순회 출장 영사업무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했다.

오진관 영사와 김범준 행정원이 참가해 평소 먼 거리로 인해 총영사관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한인 및 유학생들에게 여권갱신, 국내 토지이전 상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영사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순회영사 서비스에는 한미정



보스톤 총영사관은 1월 27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엠허스트 지역 소재 유매스(UMass) 엠허스트 뉴만 센터에서 순회 출장 영사업무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했다

치력신장연대의 김성혁 회장이 참여해 봉사 후원을 제공했다. 김 회장은 “차로 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하는 보

스톤 방문은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렇

게 발로 뛰는 영사 업무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플루 증상 매사추세츠 급증

보스톤 서쪽에서 감염 사례 급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 플루 감염 사례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가 1월 21일자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고열과 기침 및 목통증을 동반한 플루증상은 95번도로와 495도로 사이에 있는 보스톤 서쪽의 타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동부 매사추세츠 및 보스톤은 비교적 낮은 감염사례를 보이고 있다.

올해들어 플루 감염은 지난해보다 훨씬 높지만 극성이었던 2년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플루 감염이 피크에 달하는 달은 2월이어서 아직 올해 플루 감염사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보건관계자의 말이다.

매사추세츠 보건부 알 드마리아 박사는 “지난 몇주동안 감염사례가 늘고 있다. 감염이 최절정에 달하는 것은 앞으로 몇주 안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드마리아 박사는 “여전히 플루 감염이 높지만 완전히



플루감염이 만연하지는 않고 있다” 는 진단이다.

드마리아 박사는 올 시즌 플루 백신이 비교적 유행하고 있는 플루와 잘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모든 것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플루 백신은 감염 가능성을 50-60% 가량 줄인다고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건부는 아직까지 플루 접종을 안한 사람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플루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질병통제센터는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을 자주 씻고 감염증세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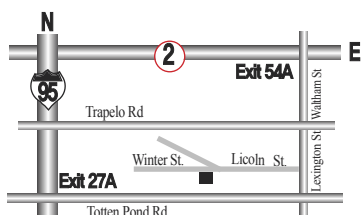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버드필름아카이브 70년대 한국영화 전

천재감독 하길종 작품 중심으로 14편 상영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필름아카이브는 <하길종과 한국영화의 중흥>이라는 주제로 1970년대 한국영화의 중흥을 이끌었던 천재감독 하길종 작품 7편을 비롯 김수영, 이장호 감독 등 총 14개 영화를 2월 3일부터 상영한다. 영화는 2월 27일까지 한달동안 금, 일, 월요일 등에 상영된다.

하길종 감독은 “1941년 태어나 1979년 세상을 떠날때까지 짧은 생애동안 7편 밖에 만들

지 못했으나, 그 실험정신과 모더니즘 때문에 한국의 천재 감독으로 평가 받는다” 고 한국의 나무위키는 적었다.

하버드 필름아카이브는 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길종 감독의 영화를 회상적으로 상영한다. 그러나 하길종 감독의 작품뿐만 아니라 하감독의 후배 감독인 이장호, 김호선 감독의 작품과 하길종 감독이 영향을 받은 김기영, 유현목 감독들의 작품도 동시에 상영된다.

1970년대의 이 영화들은 1970년대 하길종 감독의 주도로 새로운 장르와 이야기중심의 영화 전통의 재발견이 시작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하에서 새로운 정치적, 미적 의식이 드러난다.

하버드 필름아카이브는 케임브리지 24 퀸지스트리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일반인은 9불, 학생들은 7불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무료다.

hsb@bostonkorea.com



1975년 제작된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영화 상영 일정: 모든 영화는 영어자막으로 상영(Korean with English subtitles)

The Pollen of Flowers (화분) Directed by Ha Gil-Jong. With Ha Myung-Joong, Nam Goong-Won, Choi Ji-Hee Friday February 3 at 7pm Sunday February 19 at 5pm	Yeong-Ja's Heydays (영자의 전성시대) Directed by Kim Ho-Seon. With Yeom Bok-Soon, Song Jae-Ho, Choi Bool-Am Saturday February 4 at 9:30pm	Sunday February 12 at 5pm Vow of Chastity, AKA Her Fidelity (수절) Directed by Ha Gil-Jong. With Ha Myung-Joong, Park Ji-Yeong, Lee Young-Ok Sunday February 12 at 7pm A Splendid Outing (화려한 외출) Directed by Kim Su-Yong. With Yoon Jeong-Hee, Lee Dae-Keun, Lee Young-Ha Monday February 13 at 7pm The Ascension of Han-Ne (하네의 승천)	Directed by Ha Gil-Jong. With Hah Myung-Joong, Hwang Hae, Jeon Young-Sun Korean with English subtitles Friday February 17 at 7pm I-eo Island (이여도) Directed by Kim Ki-Young. With Lee Hwa-Shi, Kim Jeong-Cheol, Choi Yun-Seok Friday February 17 at 9:15pm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별들의 고향) Directed by Lee Jang-Ho. With Ahn In-Sook, Shin Seong-II, Yoon Il-Bong	Sunday February 19 at 7pm I Am Looking for a Bride (여자를 찾습니다) Directed by Ha Gil-Jong. With Ha Jae-Young, Yoon Mi-Ra, Seo Na-Mi Monday February 20 at 7pm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2 (속별들의 고향) Sunday February 26 at 7pm Byongtae and Youngja (병태와영자) Directed by Ha Gil-Jong. With Sohn Jeong-Hwan, Lee Young-Ok, Han Jin-Hui Monday February 27 at 7pm
---	--	--	--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кс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2017년 1월
보스톤 정관장과 함께
인정하세요!!

지친 일상, 고된 삶속에서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

**<구정 프로모션>
1월 29일까지**

EVENT 1
홍삼추출액(30포)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3+1**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EVENT 3
홍삼본 골드 (\$183)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KGC Boston Brand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주문 **781-238-0303**

1일부터 우버, 리프트 로건 국제공항 영업 허용

▶▶1면에 이어서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미 지방법원 나다니엘 고튼 판사는 1월 21일 “원고(택시업체)는 운송권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기존 권리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택시협회는 “우버 등은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택시에게만 과도한 규제가 주어지고 있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이커 주지사의 대변인 빌 피트먼은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공공안전에 우선 순위를 두는 교통 네트워크 회사의 규제체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판결을 에둘러 옹호했다.

우버 등은 주 정부의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 택시업체와 동일하게 차량검사나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 하여 택시와의 규제 준수 간격을 줄여왔었다. 그러나 택시업체는 택시 영업 허가비용, 안전교육 투자, 요금 체계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조사에 따르면 우버 이용객수는 택시 이용객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지역의 경우 ‘우버’의 승객은 46.1%로 32%에 그친 택시 승차율보다 훨씬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산업의 미



1일부터 우버, 리프트의 로건 국제공항의 영업이 허용되면서 택시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택시를 앞지른 우버의 승차율 만큼 우버의 고객들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단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에버렛에 거주중인 케이티 씨는 “새벽시간에 귀가 할 때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데 우버는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차를 탈 수 있어 편하고, 교통비도 저렴한 데다 팁을 낼 필요가 없어 훨씬 돈이 절약된다. 예전에 운행했던 심야 전철이 아쉽지 않을 정도”라며 극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택시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올스턴에 거주중인 대학원생 이첸 씨는 “지

금은 택시라는 경쟁자가 존재해 ‘우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겠지만, 택시산업이 붕괴되면 공급의 독점으로 인해 우버와 리프트가 지금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우버’는 무인 자동차 개발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택시 기사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우버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우버’의 급성장에 경계를 나타냈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 미술관과 한국 설날의 만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소재 보스톤 미술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오는 2월4일(토) 오후 네 번째 음력 설날 축제(Lunar New Year Celebration)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및 베트남 문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시아권 나라들의 전통적인 음력 설날 풍습을 소개한다. 미술관 전체가 무료로 개방되므로 설날 잔치와 미술관 관람을 병행할 수 있다.

올해 보스톤 미술관 설날잔치 한국 관련 행사는 한미예술협회와 뉴잉글랜드한국학교가 협력하여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mfa.org의 스페셜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찾아가는 역사,문화 캠프〉 성황리에 개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주최
교사대상 강연과 학생캠프, 알찬 프로그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2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역사 및 문화 캠프〉가 1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돼 교사들과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첫 번째로 시도한 역사,문화캠프는 “그림 그리기 선생님, 참쌤”으로 유명한 김차명 선생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4학년 이상의 한국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을 함께 했다.

27일에는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강연이 오전과 오후 밀알한국학교와 성요한 한국학교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강의를 분산 개최해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했다. 김차명 강사는 피곤한 기색 없이 열심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이끌었고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길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 날 강연에서는 역사 공부할 흥미롭고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법으로써 그림, 이미지를 통한 〈비주얼 싱킹〉을 유도하고, 계속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게 하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강연을 들은 한 교사는 “그림을 이용한 역사 가르치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수업 방식이라든가 쉽게 캐릭터 그리기 등의 새롭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서 도움

이 되었다”고 전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28일 노스엔도버 소재 다문화선교교회 캠프는 예상치를 넘는 현장 등록자로 인해 70명을 훌쩍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전체 학생들을 연령대별로 골고루 섞어 10개의 조로 나누어 테이블에 앉도록 해 ‘머리 어깨 무릎 발’ 게임과 이름 빙고 게임 등으로 흥미를 돋우었다.

김차명 강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계속 퀴즈를 내고 맞추는 학생에게 준비해 온 스낵을 주기도 하였으며, 빨대를 이용한 ‘탑쌓기’, ‘신분제 가위바위보’ 게임활동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학생들은 열띤 승부욕과 경쟁을 벌이며 강의에 몰입했다.

오후 캠프에서는 기본 남자, 여자 캐릭터 그리기를 배운 후 단군왕검과 세종대왕 캐릭터 그리기, 세종대왕에 관한 미니북 만들기,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운 다음, 거북선 만들기 등의 활동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를 위해 김차명 선생은 한국말에 익숙치 않은 2세 학생들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온 영상에 전날까지 밤샘작업으로 영어자막을 추가하는 등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박지애 협의회 총무는 학생들을 위해 동시통역을 해 주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수고를 기울였다. 6.25 한국전쟁과 독도 문제에 관한 강의도 덧붙여졌다.



한인 2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찾아가는 역사 및 문화 캠프〉가 1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돼 교사들과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캠프가 끝난 후, 뉴잉글랜드한국학교의 이해린, 준호 남매가 자발적으로 무대로 나와 강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율동과 함께 노래를 선사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김차명 선생도 줄지어 선 많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캐릭터를 정성껏 그려주며 대화를 나누는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차명 선생은 소감을 통해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고 또 스스로없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

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고, 캠프에 참여했던 밀알한국학교의 김지은 학생은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여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특히 쉽게 캐릭터 그리기 법을 배운 것과 멋진 거북선 모형을 만든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한순용 뉴잉글랜드협의회장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큰 힘을 보태준 협의회 김현주 부회장, 박지애 총무, 이정옥

간사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역사,문화캠프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우스터 한국학교의 한 학부모는 캠프를 다녀온 아이가 대뜸 “오늘 캠프를 보내 주셔서 고맙워요.”라고 하였고, 운전만 해 줬을 뿐인데 지금껏 어떤 프로그램에 보내도 듣지 못했던 말을 처음 들었다며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역사 캠프 후기

그림 그리는 선생님, 참쌤
김차명

미국에서 가장 오랜된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톤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이번 겨울방학 마지막 강의 일정
으로 보스턴과 뉴욕으로 비주얼씽킹 기반 역사교육 강의를 왔습니다

〈중략〉
(보스톤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과 6시간을 공부하면서, 저도 꽤 당황했지만 그림을 활용하니 개념을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에 대해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것보단 세종대왕의 익선관(머리에 쓰는 관)을 그리고, “이는 매미모양이다. 왜 그럴까? 선생님은 처음엔 개구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는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한손엔 훈민정음을 그리고 한손엔 고기를 그렸습니다. 고기를 왜 그렸을까? 세종대왕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할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동글동글하게 그려놓고 상당히 비만이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장애인이었습니
다. 눈을 감은 세종대왕을 그리고
“어느 장애였을까? 시각장애가
있었는데, 왜 눈이 그렇게 안 좋았
을까?” 등을 조금씩 그려가며 천
천히 설명하고그려보라 하니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역시 여러마디
말보다는 하나의 그림이 훨씬 효과
적이었습니다.

고조선 단군을 그려보고, 삼국 시대의 성장기를 탐 쌓기와 게임으로 풀어보고, 세종대왕을 그리면서 조선문화재 홍보책자도 만들고, 거북선 모형을 만들며 이순신장군에



김차명 선생

대해서 알아가고, 안용복 애니메이션을 보고 독도에 대해 배우고, 학도병의 편지 영상을 보고 6.25전쟁의 슬픔에 대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너무 예뻐서 오는 친구들
전부 캐릭터 그려줬어요.

이제 마지막 일정한 남겨둔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먼저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다음날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반대로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학생들과 6시간 역사 공부
해보니 제가 전 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
에 적용 불가능할 것 같은 내용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역사와 글을 가르치고 계시
는 한글학교선생님들에게 무한한
존경...!

〈중략〉

늦은 시간까지 강의 중에 계속 질문하면서 역사교육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더하시던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미국 엄마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아침부터 자기 빵, 자기 고기 떼어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계속 챙겨주신 우리 회장님,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신 우리 김현주 부회장님, 강의 중 틈틈이 통역해주신 우리 총무님.

〈중략〉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며 자랑거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선배와의 대담>시간에 경험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선배들에게 듣는 <선배와의 대담 및 인터뷰>가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됐다.

1월 21일 토요일 개최된 <선배와의 대담 및 인터뷰>에는
곽일범, 김하얀, 박정파, 박지인, 오인희, 이수지, 이준석, 조
빛나 8명의 한국학교를 졸업했거나 교재나 인터넷을 통한
한글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2세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들 청년들은 “한글과 한국의 문화, 역사를 배우는다는 의미는 곧 ‘내가 누구인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 성장하며 혼란에 빠지기도 했던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미국에 살면서 자신이 한인 2세라는 것이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한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엄청난 지적자산이자 자랑거리' 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각자 다른 나라와 지방에서 왔다.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한인 2세로서의 자긍심을 가져 줄 것을 힘주어 강조했다.

중학교 때부터 몇 년 동안만 한글학교에 다녔다고 밝힌 참가자는 “내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랬다면 아마 보다 많은 기회가 내게 생겼을 것으로 믿으며 만약 내가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문화, 역사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며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가한 2세 청년들은 행사를 마무리 하며 "한글학교 학생 여러분, 주말에 학교 다니기 싫겠지만 그건 우리도 예전에 겪었던 바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기회를 갖고 글로벌 경쟁사회에 나가는 것이니 바라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기를 바란다."며 조언했다.

〈선배와의 대담 및 인터뷰〉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한국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선배들에게 듣는 <선배와의 대담 및 인터뷰>가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됐다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선생님이 아닌 한인 2세
선배들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담을 인터뷰를 통해 듣고 '선
배와의 대담' 행사를 통해 선배들이 직접 후배들에게 격려
와 용기를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의 맞춤형 지
원사업으로 채택됐다.

남일 교장은 “사실 주중에 일반학교를, 주말에는 한글 학교를 다니는 것은 대부분의 2세들에게는 결코 달갑지도 쉽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고, 부모의 경우에도 주말에 있는 자녀의 특별활동 선택과 한국학교 교육의 지속을 놓고 고민하며 되도록 두 가지 모두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능과 운동을 택하는 대신 언어교육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취지를 설명했다.

남일 교장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류장한, 김영순, 이지훈 교사와 참가한 2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곧 스테디코리안 및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다른 한글학교들과도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홈페이지는 www.ksneusa.org이며 학교 문의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sneusa@verizon.net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방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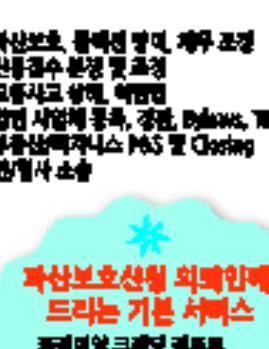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몰래전 방지, 채무 조정
신용회수 분쟁 및 조정
고용사고 상해, 허위진단
법인 사업체 등록, 장원, Elyons, TMI
부동산매각자식 PMS 및 Closing
민정사 소송

*** 파산보호신청 외파인재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파산법 전문 변호사 서비스(1년)

<대소변환, 회계조사, 허위진단 및 조정, 가압 및 압류방지, 부채, 추징금,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 관련 법률 자문>

*Case handled by JIM KIM, Esq. Senior Associate law may var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메시주제스 & 뉴욕 루 찰리엔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98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회계/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병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 9곳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뉴 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듯 싶더니 눈보라가 찾아왔다. 3월까지 지속되는 기나긴 겨울나기에 피난처가 되어줄 보스턴 내 실내 수영장 9곳을 소개한다. 이는 보스턴닷컴(boston.com)의 29일자 보도를 참고한 것이다.

보스턴 대학교 피트니스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Boston University Fitness and Recreation Center)

보스턴 대학교 피트니스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에는 두개의 실내 풀장이 있다. 그 중 레크리에이션 풀장은 래핑 레인, 휠체어 경사로, 유수 풀을 갖추고 있으며, 물 온도는 84도이다. 이보다 좀 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영풀은 13.5피트의 깊이로, 경주와 수중 폴로 경기에 적합하다. 그 외에도 겨울에 이용하기 안성맞춤인 15인용 온수 욕조가 구비되어 있다. BU 학생들 및 회원들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915 Com-

monwealth Ave., 회원가입 가능)

씨포트 호텔 및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웨이브 헬스 및 피트니스 (Seaport Hotel and World Trade Center's Wave Health & Fitness)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웨이브 헬스 및 피트니스 시설은 회원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으나, 수영장의 이용만을 원하는 회원 옵션 또한 가능하다. 최근 온수 수영장 개조 공사를 마쳤으며, 새로운 타일 외에도 수중 스피커가 추가되었다. (1 Seaport Lane., 회원 플랜은 \$49부터 시작)

헌팅턴 애비뉴 YMCA (Huntington Avenue YMCA)

최근 YMCA는 온수 수영장 개조 공사를 통해 연습레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모두 갖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수영강습과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제공된다. 만약을 대비해 인명 구조원이 항상 대기중이다. (316 Huntington Ave., YMCA는 매월 비회원을 위한 커뮤니티



연방 법무부 소속 검찰이 트윗한 2씨포트 호텔 및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웨이브 헬스 및 피트니스 내부 전경 현금 사진

데이를 가지며, 이날에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케임브리지 아틀란티스 스포츠 클럽 (Atlantis Sports Club in Cambridge)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케임브리지 지역 클럽은 이번 새로운 개조를 통해 주니어 올림픽 해수 수영장을 구비하고 있다. 사우나 및 한증막 뿐만 아니라 수영 레슨이 제공된다. (575 Memorial Dr., Cambridge, 하얏트 리젠시 내부, 온라인으로 무료 게스트 패스 이용 가능, 멤버십은 한 달에 59달러부터)

커먼웰스 스포츠 클럽 (Commonwealth Sports Club)

해수 수영장 및 온수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며 아쿠아 기공, 타이치와 같은 수중 운동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1079 Commonwealth Ave., 온라인으로 체협 사용권 신청 가능, 월 \$67- \$89)

마운트 어번 클럽 (Mount Auburn Club)

7개의 레인, 75피트 길이의 수영장을 갖춘 이 워터타운의 클럽은 모든 연령대가 즐기기에 적합하다. 저염소 설비 및 자연 채광으로 자연 친화적이다. 온수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며, 아쿠아틱 수업이 제공된다. (57 Coolidge Ave., Watertown, 무료 온라인 7일 패스 제공, 회원 가입비 월 \$125)

하얏트 리젠시 (Hyatt Regency)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이 수영장은 바쁜 스케줄을 가진 사람도 방문하기 적합하다. 52피트의 온수 수영장 뿐만 아니라 사우나가 투숙객에 한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1 Avenue de Lafayette, Boston)

레벤탈 시드먼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Leventhal-Sidman Jewish Community Center of Greater Boston)

종교와 상관없이 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베이비 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에어로빅 및 수영 수업이 운영된다. (333 Nahanton St., Newton, 온라인으로 무료 체험 3일 제공, 회원 가입비 3개월 동안 290달러부터)

보스턴 하버 호텔의 로우스 워프 헬스클럽 및 스파 (The Boston Harbor Hotel's Rows Wharf Health Club and Spa)

호텔 투숙객 뿐만 아니라 개인 회원이 이용 가능한 헬스클럽 및 스파 시설로, 3레인, 60피트 길이, 83도의 염소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다. 103도의 자쿠지, 사우나, 스팀룸 또한 이용가능하다. 가운과 타월 대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70 Rows Wharf, 회원 가입비 월 \$ 160)

sun@bostonkorea.com



보스턴 하버 호텔의 로우스 워프 헬스클럽 및 스파 내부 전경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최신적인 메이크업과 디자인의
트렌드를 제공하는 전문 학교입니다.

Blessing
Channels
Nail Academy

전문 수강생 특별 할인 가격 (10월 20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winning Performance
> 저명한 Teachers
> MA주 다년간의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bostonkorea.com
주요 미술교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미술 수업과 미술
작품을 남기고 기쁨을 배우는 미술수업을 도와줍니다.
미술을 통해 심리 학습이 가능하며 즐거운 미술 수업입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토콜로 제작
화선 및 점선만 개성
수업 3시간 (10월 20일)
(강사: 미술교과 교사인학과 미술, Keri Koshida Fine Art, 학생)

78 Millis Street #1039 Allston, MA 02134
bena76@gmail.com

문의 및 예약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독일 이민자인 부시(Adolphus Busch)가 창립한 버드와이저가 이색적으로 이민자를 주제로 슈퍼볼 광고를 만들어 화제다

버드와이저 슈퍼볼 광고 우리 뿌리는 이민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독일 이민자인 부시(Adolphus Busch)가 창립하고 지금은 벨기에 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간 버드와이저가 이색적으로 이민자를 주제로 슈퍼볼 광고를 만들어 화제다.

트럼프의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일시적 입국금지 명령과 이민자 압박 행정명령으로 논란인 상황에서 “넌 이곳에서 필요없어. 네 집으로 돌아가(You’re not wanted here. Go back home)”란 외침이 유난히 귀에 맴도는 이 광고는 31일 유튜브에 포스트됐다.

“역경을 거치며 탄생”이란 제목의 60초짜리 광고는 버드와이저의 창시자 아돌프스 부시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는 과정을 그렸다. 마침내 세인트루이스에서 맥주로 그를 환영해주는 사

업가이자 장인인 에버하드 엔하우저를 만나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광고는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슈퍼볼에 전파를 탄다.

이 광고는 자연스럽게 반이민 주장을 이어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린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물론 버드와이저측은 완강히 이 같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창업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린 것” 일뿐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민은 미국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럼에도 버드와이저 광고는 이민을 주제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담음으로써 정치 논란을 슬며시 비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명기업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성명을 발표했지만 엔호이저-부시 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근들어 버드와이저는 유난히 <아메리칸>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내 회사가 벨기에 소재 글로벌 회사에 인수됐기 때문에 미국에 친근한 마케팅 전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버드와이저 광고는 상징적인 거대 클리데스데일 말 또는 개구리, 랍스터를 통해 광고했었다. 이민자였던 창시자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한 것은 분명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경찰서장, 슈퍼볼 이후 거리난동 강력 단속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월 5일 일요일 슈퍼볼 후 거리로 뛰쳐나갈 계획을 세웠다면 다시 생각해볼 것이 좋다. 보스턴 경찰은 슈퍼볼 이후 벌어지는 어떤 불법 응원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31일 발표했다.

보스턴 소속 스포츠팀이 우승하면 보스턴 시내에는 광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거리의 스포츠바와 각종 술집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학생들, 시민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거리의 우승이후 축하 응원전은 펼쳐지는 사 람에게는 즐거움이었지만 보스턴 경찰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보스턴 경찰에게 패트리어츠는 애증의 대상이다. 너무 자주 슈퍼볼에 출전하는 것은 경찰들에게 즐거움이지만 이들은 패트리어츠가 슈퍼볼에 진출하면 편안하게 파티를 즐기며 감상하는 여유는 반납해야

한다. 이들은 한 번도 슈퍼볼 게임을 집에서 감상해본 적이 없다. 단지 스포츠바 유리창으로 경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전부다.

보스턴 경찰서장 윌리엄 에반스는 이번 주 일요일 보스턴 경찰을 전원 거리에서 비상대시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서장은 공영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각 대학 학생들에게도 질서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에반스 서장은 일부 대학 주변에 주차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스턴 북경 사거리는 응원단의 주요 집결지 중의 하나다.

에반스 서장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해당 학생의 이름을 학교 총장에게 보내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경찰서장 윌리엄 에반스는 이번 주 일요일 보스턴 경찰을 전원 거리에서 비상대시킴 계획이라고 밝혔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니에르 증후군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량 증진
- ⑤ 소화장애, 변비, 대장염, 대장출혈 등
- ⑥ 골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노인, 장애인
- ⑧ 모든 질환을 위한 치료, 재활, 예방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듭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8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죽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턴, 미국 대도시 중 실업률 최저

실업률도 가장 많이 떨어져 2.5% 기록
시카고는 대도시 중 실업률 가장 높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실업률과 관련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보스턴과 시카고가 각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일, 2016년 실업률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51곳 중에서 보스턴-캠브리지 지역은 가장 낮은 2.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보스턴은 실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으로 2015년 대비 1.5%가 낮아졌다.

시카고-네이퍼빌 지역은 대도시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5.4%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1년 사이 실업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클리블랜드-일리리아 지역으로 1.2%가 증가했다.

하버드와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이 자리한 보스턴 지역은 입지 여건상 교육 수준이 높은 고급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바이오테크와 금융 서비스 등의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보스턴과는 반대로 시카고는 제조

업 분야에서의 침체가 실업률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또한 퇴직 급여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시카고 시 정부의 실정도 실업률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라며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보스턴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기

록하면서 매사추세츠 전체적으로도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실업률은 2.8%로 미국 전체 평균인 4.7%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로널드 위커 매사추세츠 노동부 장관은 “6개월 연속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노동 가능 인구의 경제 참여비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경제에 좋은 뉴스다” 라고 말했다.

2016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7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민 중 10만 여명이 실업 상태이다.

jsi@bostonkorea.com



보스턴의 바이오테크와 금융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MBTA 저소득 청년 위한 패스 발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가 2월 1일부터 유스 패스(Youth Pass)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소득이 낮은 젊은 성인들을 위해 월 정기권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스 패스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성인으로 검정고시(GED)나 직업 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구입이 가능하다. 유스 패스 구입 자격을 갖춘 사람은 MBTA의 링크패스(LinkPass)를 3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링크패스는 한 달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MBTA의 정기 승차권을 전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그러나 링크패스로 커뮤니티레일은 이용할 수 없다. 링크패스의 정상 판매 가격은 84.50달러이다.

유스 패스는 보스턴, 첼시, 몰든, 서머빌 거주민이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MBTA 홈페이지(mbt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들 모르는 서울설렁탕의 매력, 국물,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이웃님! 안녕!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Facebook: SeoulSeolnongtang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Facebook: SeoulFoodMarketBar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bc, ocn, tvN, SBS, KBS, MBC, EBS, YTN, JTBC, etc.

카플리스퀘어 수천명 이민행정명령 항의 집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주에 이어 또 시위대가 보스톤 다운타운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트럼프의 금요일 이민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 하기 위한 집회이며 장소가 카플리스퀘어였다는 점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 국가로부터 오는 이민자들을 입국을 금지하며 심지어 영주권자들까지 세관에 억류됐다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수천명이 운집한 카플리스퀘어에는 에드워드 마키 및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 등 많은 정치인들까지 모였다. 그러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번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매사추세츠의 교육과 건강보험 그리고 비즈니스업계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29일 보스톤 카플리스퀘어에서 열린 트럼프 이민행정명령 반대 집회(사진 = 김시훈 기자)



카플리스퀘어에 모인 트럼프 반이민정책 항의 시위대(사진=김시훈 기자)

보스톤 법원, 트럼프 이민자 입국금지 행정명령 임시 정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법정이 29일 새벽 7개 무슬림 국가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임시 중단시켰다.

1시 51분 보스톤 연방지법의 엘리슨 버로우 판사와 주디스 데인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을 7일동안 중단시켜 이란,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시리아 7개국에서 입국하는 합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토록 했다. 새벽 판결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번 판결은 연방 공무원들이 오로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 난민들을 구류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별도 보안 검색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판사들은 이민세관보호당국이 각 항공사에 통보해 이민자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잔 처치 등의 변호사가 최초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소속 두 명의 영주권 소지 교수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 이란에서 입국한 두 교수는 28일 로건 공항에 감금되어 3시간 동안이나 심문을 받아야만 했다. 이 두 교수는 학회를 위해 이란을 방문했으며 29일 5시 30분에 입국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구류됐었다.

비록 이 두 교수는 3시간 후 풀려



로건공항에서 입국시커라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는 군중들

났지만 변호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입국금지에 시달릴 것을 예측해 서둘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들은 행정명령이 헌법에 근거한 이민자의 권리는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의 어두운 복도에서 28일 토요일 밤에서 29일 일요일 새벽까지 대기했으며 판결이 나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이번 임시 정지명령이 항구적인 명령으로 바뀌길 기원했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변호사들은 토요일 저녁 파티에서 뛰쳐나와 법원으로 달려가 밤 10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복장은 파티 드레스가 상당수였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매튜 시걸 시민자유연맹(ACLU) 매사추세츠 법률디렉터

는 심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은 불법적이며 비헌법적이다. 대통령이 계속 이런 류의 계획을 밀어 부칠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그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무슬림 7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과 세계 각국에서의 피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정지하고 시리아출신의 이민자들의 입국을 항구적으로 금지시켰다.

그의 금지명령에 대해 로건 공항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보스톤 외 뉴욕의 연방 판사도 28일 밤 뉴욕의 JFK 공항에 억류되어있는 이민자와 난민의 추방을 금지토록 했으며 버지니아 연방법원도 행정명령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3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국경세 도입하면 "세계무역 '대학살' + 달러 강세"

도이체뱅크 "멕시코 최대 피해... 亞 제조국 타격"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세우려는 장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교역에 심각한 여파를 끼치며 세계 무역의 '대학살'이 발생하고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라고 도이체뱅크가 경고했다.

도이체뱅크는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세계가 우려하는 미국의 국경세가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해 글로벌 무역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봤다. 도이체뱅크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20% 국경세를 도입하면 교역국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멕시코는 국내총생산(GDP)의 6.5%가 줄면서 최대 손실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캐나다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조국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로빈 윈클러 도이체뱅크 이코노미스트는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국경세가 내년 달러를 끌어올릴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국경세를 도입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성공적일 것이라고 도이체뱅크는 전망했다. 하지만 교역국의 생산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 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역국의 손실은 커진다.

예를 들어 영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요의 탄력성은 매우 높다. 국경세로 인해 10억 달러 흑자가 190억달러 적자로 반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적자는 미국과 영국 간 무역 규모의 1/5에 해당한다.

도이체뱅크는 국경세가 달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산 수요가 늘고 수입산 수요가 줄면서 달러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경세에 따른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달러 강세를 상쇄하더라도 미국의 각국과의 양자 무역관계 역시 "심각하게 와해될 것"이라고 윈클러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kirimi99@news1.kr

FT "트럼프, 동맹 분노 야기하며 환율전쟁 공포 유발"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의 통화 가치 평가절하를 비난 한 것은 동맹국들의 분노와 불안을 야기하면서 세계를 새로운 환율전쟁 국면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통화 가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과 일본이 의도적으로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엔화를 의도적으로 조정한다는 종류의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고 한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발언을 부인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엄청나게 저평가된 유로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연합 파트너들을 착취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그는 상원의원들에게 달러의 "장기적인" 강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통화 문제는 재무장관의 업무였다. 1990년대 로버트 루빈 장관 이후로 미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의 강한 경제력을 반영한 '강한 달러'를 강조해왔다.

선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바로 위원장 발언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유로에 대한 코멘트도 거절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전부 므누신이 재무장관에 취임한 뒤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율전쟁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본격적인 무역 대결을 우려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시작과 보호무역주의가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키웠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감세, 인프라지출, 국경세 부과 같은 트럼프의 부양책이 달러 강세 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가 더 공격적인 무역 행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 일본, 멕시코 등을 겨냥해 미국의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했다.

율리히 레흐트만 코메르츠뱅크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غم직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환율전쟁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고 경고했다. 레흐트만은 "나바로 위원장의 발언은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환율전쟁에서 기습공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정책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통화 약세가 완화정책의 목표가 아닌, 자국 인플레이션 부양 과정에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마사츠구 아사카와 일본 재무성 재무관(국제담당 차관)은 '최근 엔화 움직임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는 시장·통화정책에 의해 주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최근 몇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를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지난 2009년 금융 위기와 2011년 동북 대지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해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선까지 뛰어 오르면서 외환시장 개입 관측이 고개를 들었으나, 실제 일본정부는 개입을 삼갔다. 중국 역시 최근 몇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minssun@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t.usgtr@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전통상차이 30년째
 전통의 맛과 멋을 담은
 전통의 맛과 멋을 담은
 전통의 맛과 멋을 담은

문의 617.248.3131 Happydol@gmail.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아일린 박)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트럼프 '反이민'에 美 대학가 비상... 연 8100억원 손실

'전세계 인재 요람' 美 대학 국제지위도 위태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7개 무슬림국가 출신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영구화 될 경우 미국 내 대학들이 연간 7억 달러(약 81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각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전세계 수재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미국 대학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간) 미국 고등교육 정보 사이트 컬리지팩투얼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앞으로 최소 3개월간 시리아와 이라크·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대학 가운데 7개국 출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노스웨스턴대, 텍사스 A&M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서던 캘리포니아대(USC) 등 4개 대학의 연간 손실액만 각각 최소 1000만 달러(11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컬리지팩투얼은 추산했다.

미국내 대학 전체로 보면 손실 예상액은 연간 7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는 정식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미시간주립대의 브랜든 캔트웰 조

교수는 "무슬림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입국 금지 조치가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불안은 다수의 대학 재정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특히 이란 출신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년간 이란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학생 수는 1만 2300명까지 늘어 세계 11위에 올라선 상태다. 미국 대학에 재학중인 이란 학생의 수는 입국 금지 7개국 중 다른 6개국 출신 학생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두배

이상 많다.

특히 이란 출신 유학생의 80%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했던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STEM 분야에 집중돼 있다.

대학가는 이번 조처가 재학생들과 학부 전체에 끼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일부 무슬림계 학생들과 교수들은 정식 학생·취업 비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 수 콜먼 미국대학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이 벌써 피해를 내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종료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baebae@news1.kr



29일 워싱턴 DC 라파예트 광장에서 벌어진 반(反)트럼프 행정의 시위

美 연준, 금리 동결... "경제심리 개선, 물가 오를 것"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미국의 경제 흐름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준은 1일 이를 일종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의 0.5~0.7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이뤄졌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세도 "견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지표도 최근 높아졌다"고 새로 언급해 경제전망이 좀 더 밝아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최근 설비투자 회복신호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미약하다"(soft)고 계속 지적했다.

연준 정책위원들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실업률은 4.7%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연준은 다음 번 금리인상 시기를 가능할 만한 단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개 양상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초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지나치게 느리게 실행할 경우 '불쌍사나운 서프라이즈'를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치인 2%를 향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 가격에서 도출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설문조사로 확인한 경제주체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다음 FOMC 정례회의는 오는 3월 14~15일에 열릴 예정이다.

acenes@news1.kr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랑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수 가능.
주방기술자 파랑돌에 파랑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랑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랑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파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즌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즌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랑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랑돌 공장 전경



CRG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넓기도운 현명통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개구 세대가 3호, 총 수납 약 16,000,
대지 면적 8100 sq.ft, 14700 sq.ft



Newton \$1,300,000
271구세구, 안수잔\$104,900, 대지면적22000 sq.ft,
15만여평 땅이 있어 3호,
행복하기 좋은 주택 7군데, 보스턴에서



Newton \$1,399,000
2015년 세일, 최고 학교, 후가원 6000sq.ft,
대지면적 16000 sq.ft, 방5개, 화장실4.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세일, 방5개, 화장실 2.5개,
후가원 20000sq.ft, 대지 면적 4770 sq.ft,
Hood 5분 거리.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후가원 6700sq.ft,
4호 2호 \$ 290 4호, 1400 sq.ft, 1400 sq.ft,
6호를 5분거리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oburn \$1,360,000
2015년 세일 최고 학교, 방5개, 화장실 4.5개,
후가원 40000sq.ft, 대지면적 17040sq.ft,
매우 바빠, 최고 학교, 3분거리 3호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특검 "경내진입 거부는 靑 입장일 뿐...압수수색 모든 곳 가능"

이르면 내일 압수수색 전망도 나와

"대면조사 시기·장소 조율중"...차대통령 지연작전?

(서울=뉴스1) 심언기, 이후민 기자 =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시기·방법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 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 등의 이유를 들어 경내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자, 특검은 청와대 경내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없다"며 청와대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

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라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에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모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방금 말한 장소들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압수수색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현재 예측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집행시기와 관련해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누차 말하지만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3일 압수수색이 집행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특검의 기본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10일이라든지, 초순 이런 것 (대면조사 시기)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런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공개여부와 관련해선 "대면조사가 중요하기 때문

에 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공식수사 기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잘 아는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반면, 박 대통령의 직접진술 확보가 중요한 특검 간 수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분

석된다.

아울러 대면조사 실시하는 사실을 사전에 공개할지와 어디에서 조사하는지 등 민감한 사항을 두고서도 박 대통령과 특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달여 남은 30일 오전 청와대와 북악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이틀째 특검 강제출석 최순실 질문엔 "..."

(서울=뉴스1) 심언기, 최동순, 최은지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전날에 이어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최씨는 '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나', '특검수사에 뭐가 불만인가', '아직도 강압수사를 주장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최씨의 출석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선 '병어리나', '특검이 만만하냐' 등 욕설이 터져나왔고, 취재진과 최씨를 호송하는 교도관 사이에 가벼운 몸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최씨 조사를 위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 중이다. 지난 1일 오전 9시 집행된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이다.

최씨는 전날 미얀마 해외원조사업(ODA)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 7분쯤 나와 구치소로 복귀했다.

지난번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강제 소환조사 당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최씨는 돌발행동이 득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듯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도 최씨를 상대로 미안마 원조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집

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재경 주미안파 대사 등 인사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미얀마에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타운사업에 최씨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M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받아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최씨와 함께 일했던 류상영 더불어민주당 부장의 측근 인모씨가 대표인 업체다. 특검은 미얀마 K타운 사업이 실제 추진됐을 경우 M사의 지분 15%가량을 소유한 최씨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수 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최씨가 유재경 대사 등 해외공관장 임명에 관여한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확보했던 17권 분량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외에 추가로 수첩 수습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유대사 임명과 관련한 메모가 발견됐고, 유대사도 특검에서 최씨의 대사 추천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서 이상화 KEB 하나은행 글로벌영업 2본부장의 이름도 확보했다. 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며 최씨의 독일 부동산 구입 등 현지생

활을 돕고 정유라씨(21)에 대한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아온 인물이다.

독일에서 귀국한 뒤 고속승진한 이 본부장은 유대사를 최씨에게 추천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를 통해 이 본부장의 고속승진에도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사업 관련 이권을 챙기기 위해 최씨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인선과 베트남 대사 임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피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onki@news1.kr



국정농단사태의 몸통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특검 '안종범에 명품백' 김영재원장 부인 사전영장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주치의' 김영재 원장(57)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대표(48)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판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대표를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청와대 특혜지원의 대가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설 직전 안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 31일에는 박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해 사건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무료시술을 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표와 통화하며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땀다"고 언급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안 전 수석은 박씨가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15억원 상당의수술용 실개발 연구비를 특혜 지원하도록 산자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대표의 회사가 중동에 진출하도록 돕는 데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 업체 제품은 서울대병원에 납품 특혜를 받기도 했다.

또 박 대표의 회사 와이제이콥스

는 2015~2016년 박 대통령의 중남미 중국 프랑스 등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세 번이나 선정됐다. 박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화장품제조업체 존제이콥스는 지난해 2월 청와대 명절선물로 정해졌다.

그동안 김 원장 측을 위한 청와대의 특혜지원은 '비선주치의' 활동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건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원장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혜지원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의 부인 박 대표가 구속될 경우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달 14일과 31일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61·현 세브란스원장)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9)을 소환해 조사했다.

dosool@news1.kr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와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3 - FEB. 9, 2017

GRILLED SHORT RIB PATTY

A modern, easy way for you to cook authentic traditional Korean Short Rib Patties!

H마트가 초보자도 손쉽게 만드는 전통 떡갈비의 황금레시피를 공개합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Lotus Root 연근 \$1.88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Dragon Fruit 드레곤 프룻 \$3.99 lb.	Nagaimo 일본 마 \$5.99 lb.	Gobo 우엉 \$1.99 lb.
King Oyster Mushroom 새송이 버섯 8oz/pkg \$3.99	JINGA Tofu 진가네 두부 Firm/Soft - 16oz \$0.99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3cwt/pkg \$7.99	Ginger 생강 \$1.29 lb.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1.4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Heel Meat 소사태 \$7.99 lb.	Chicken Tenderloin 닭안심 \$2.99 lb.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나일강 스테이크) \$6.99 lb.	Beef Short Rib/Chunk for Stew 떡갈비 \$9.99 lb.
Sliced Thin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2mm \$9.99 lb.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돼지 목살 스테이크 \$4.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MBAY Seafood Mix 동동배 해물모듬 1lb/pkg \$3.99	CHAM Salted Mackerel 참치순살 고등어 17.6oz/pkg \$5.99
TONGTOMBAY Swai Fillet 통통배 스와이 필렛 2 lbs/pkg \$5.99	NETUNO Cooked Whole Clams 백합조개 1lb/pkg \$2.99
Louisiana Shell-on Head-on Wild Shrimp 지역산 루이지애나 머리있는 왕새우 \$7.99 lb.	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산 방어 \$14.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OR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황보우) 15 lbs. \$9.99	DONGSUH Maxim Coffee Mix Original - 6.71oz x 100ea/box \$9.99
GI Cooked White Rice CI 햇반 / 4oz x 120ea/box \$12.99	KWANGCHUN 광천 녹차김 천물세드 Original - 6.71oz x 100ea/box \$9.99

HELLO HOME Valentine's Sale

내 사랑을 위한 선물은 행복용 어메?

FEBRUARY 3 - 14, 2017

KINGMI Kyung Gi Medium Grain Rice 41 lbs. \$25.99	HOSAKU Sanuki Udon 호사쿠 우동 8.46oz x 6ea/pkg \$3.99	OTTOG Jin Jjim (Hot) Noodle Soup 오뚜기 진라면 라면 4.5oz x 4ea/pkg \$4.99	KADOW Pure Sesame Oil 가도마 참기름 594.7oz \$14.99	COLAVITA Extra Virgin Olive Oil 콜라비타 올리브 오일 24.8oz \$12.99
DASIDA Best Flavor Soup Stock 다시다 \$9.99 22 lbs.	SAMHAK Rice Cake 삼학 떡볶이믹스 3 lbs. \$4.99	SPAM Hormel Foods Spam All Natural Pork - 12oz/1/2c 2\$5	HAWAIIAN Dumpling 해물만두 2.65 lb. \$4.99	CROWN Banana Choco Sundae Ice Cream 30oz 버나나 초콜렛 아이스크림 \$2.99 100ct/box
GLICO Pocky Biscuit Sticks Chocolate - 4.41oz / Strawberry - 4.17oz \$3.99	BIN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8.46oz x 6ea/pkg \$4.99	SUNHAK Electric Pad 신학 전기요 1인용 59W-1100-700 x 1100mm \$34.99 \$44.99	GLASSLOCK 5 Pieces Set 글라스락 5인용 열거림기 5개 세트 Spacemat - 57x71in \$18.99 \$29.99	Lauren Microfiber Comforter 로렌 극세사 혁빈차림 이불 \$74.99 \$99.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PM 3-11PM**
HMAVT BURLINGTON STORE: 43 W.chester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潘사이익' 최고 수혜자는? 황교안 · 유승민...20% · 13% 흡수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여론조사...黃 반사이익 뚜렷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반사이익은 어디로 갈까.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 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2일 자사 조사연구팀에 의뢰해 지난달 31~이달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 전 총장의 지지자(전

체 15.7%) 중 20.3%가 황 대행에게, 12.8% 유 의원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는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 다음으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항목이 포함됐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야권후보들에게도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9.4%를 흡수할 전망이다. 다음은 안희정

충남지사(6.1%)와 남경필 경기지사(4.2%) 순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없음 또는 모름 · 무응답'을 선택한 부동층이 30.9%로 나타났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대선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에 실시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반 전 총장 포함)에서는 문 전 대표가 34.3%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반 전 총장 지지율은 15.7%를 나타냈다. 황 대행은 10.3%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안희정 충남지사(10.0%), 5위는 이재명 성남시장(9.8%), 6위는 안

전 대표(6.6%)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에 대한 상세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h.lee@news1.kr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좌)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

반기문, 귀국 20일 만에 대선 포기...4가지 이유

가족 비리 의혹 · 구설 · 현실 정치 환멸 · 지지율 ↓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김수완 기자 = 보수진영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던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은 1일 대선불출마를 전격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21일째인 이날 오전 불출마를 결심했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미력이나마 몸을 던지겠다는 일념에서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했다"면서도 "그러나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정계에서는 우선 반 전 총장의 대선불출마의 중요한 배경으로 친인척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꼽는다.

반 전 총장 귀국 전부터 참여정부 시절 사업가 박원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자신의 아들도 대기업에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그 이후에도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반주현씨)가 미국에서 뇌물죄로 기소된 것이 알려졌으며 둘째 동생인 반기호씨의 미안마 사업에 대해 유엔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이에 반 전 총장의 가족들은 그의 대선출마를 적극적으로 만류해왔고 설 연휴를 지나면서 그의 고민도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구설'을 낳았다.

'에비앙 생수 논란'에서 시작해 전철표 판매기에 지폐 두장을 넣으려 한 '2만원 논란', 현충원 방명록에 미리 써온 메시지를 옮겨 적은 '수첩 논란', 음성 꽃마늘에서 환자 식사 배식을 하

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택반이 논란' '퇴주잔 논란'에 이어 한일위안부 협상에 관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나쁜 놈' 논란까지 빚었으며 최근에는 "촛불 민심이 변질됐다"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10년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쌓아 놓은 업적이 한달이 채 안되는 시간에 무너졌고 이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 전 총장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 개인과 가족,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 정계 거물을 만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인사들의 현실적인 충고를 들으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반 전 총장은 제3차대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문(反문재인) 세력을 모으는 '빅텐트'를 치려고 했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 없이 혼자서 제3차대에 머물면서 대권행보를 이어가기에는 자금이나 조직의 한계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자금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당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반 전 총장과의 연대에 난색을 표했고 반 전 총장은 '보수 후보'로 전략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20%대에서 10%대로 내려앉으며 하강세를 보였고 반동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의 중도 포기는 캠프 구성원들도 모를 정도로 혼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반 전 총장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여의도에 대선 캠프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반 전 총장은 불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결심했다"고 털어냈고 기자회견 직후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sanghwi@news1.kr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고 있다

문재인, 潘 불출마 힘입은 '대세론 굳히기' 행보...확장성 증명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힘입어 '대세론 굳히기'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 전 대표 측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대세론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지지율 40%'를 달성한데다, 각 지역으로부터 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고무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최대 경쟁자였던 반 전 총장이 대선레이스에서 내려온 만큼 문 전 대표 측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대세론을 공고히 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에 따라 무엇보다 당 안팎에서 지적되는 패권주의를 일축하기 위해 '확장성' 있는 인재영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확장성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와 캠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로 보일 수 있다"며 "향후 우리 측에서는 전통적으로 '문(文)의 사람'이라고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캠프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당이 12일께부터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때쯤 경선 후보등록 및 캠프 출범을 비롯해 여러 영입인재들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문 전 대표 측은 당내 3명뿐인 호남의원들(이개호·이춘석·안호영)을 비롯해 손학규계로 꼽히는 전현희 의원 등이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

감동적 스토리'를 가진 다양한 외부인사들이 자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 전 대표 측 임종석 비서실장격은 통화에서 "당내에서 안정감과 확장력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선 때는 '함께 뛰는 주자들'을 끌어안는 게 중요할 듯하다"며 "이후에는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을 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찾은 것도 이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최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의 세(勢)'를 흡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 전 총장은 '총청의 맹주'이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세계적 직위를 이행한 만큼 그가 힘을 실어주는 쪽은 상당한 파급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뿌리가 같다.

다만 이번 대선정국에서 서로를 향해 상처를 입혔던 만큼 융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ho11757@news1.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ston Lane Acton MA
6,547s.f. 9.13 Acres 5 Bed 4.5 Bath
SOLD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및 Garage.
파킹, T-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LISTINGS

-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미림 식품 : Allston **SOLD**
-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줄리 전: 978.494.2043

차츰 탄핵지연 전략에 현재 '기본권수호 마비' 우려

탄핵심판 외 헌법소원 등 720건 진행 늦춰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펼치고 나서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기능 마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후 공정성과 신속성을 반복해 강조하며 이 사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탄핵심판을 비롯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계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전체 사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현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 심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건의 심리와 선고도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통상 매월 넷째주 혹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지난해 12월29일 헌법소원사건 42건을 대상으로 선고를 한 후 지난 1월에는 1건도 선고하지 않았다.

현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비롯해 헌법소원 67건, 위헌법률 36건, 권한쟁의 13건 등 총 721건을 심리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720건의 헌법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는 셈이다.

이밖에 가처분 사건 등 신청사건과 재심 등 특별사건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14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내 나오기 어려워져 다른 사건들의 선고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지난해 12월29일 이후 2개월 넘게 다른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을 거듭하면서 지연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10회 변론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한 번씩 진행된 바 있

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31일 퇴임한 뒤 1일부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체제'가 된 현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맞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dandy@news1.kr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재, 14일에도 증인신문... 탄핵 결론 빨라도 3월초

셋째주에도 변론... 이달내 선고는 어려울 듯

(서울=뉴스1) 안대용, 최은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도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2월 셋째주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14일에는 안봉근, 김형수, 이기우, 김홍탁 네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며 13회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사실상 잠적 상태인 안 전 비서관은 1월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전날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4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 전 비서관을 부르기로 한 같은 날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다음주 7일과 9일 각각 11·12회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현재가 이달 셋째주 화요일인 14일에도 증인신문으로 변론 일정을 잡으면서 탄핵심판

의 결론은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됐다.

통상 증인신문을 마친 후 최종 변론을 연 다음 2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가 14일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그 주에 최종변론을 연다고 해도 이달 내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른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혔지만 현재는 심리가 마냥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시계'를 조율하고 있다.

현재는 오는 9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소재불명 상태여서 출석이 불투명한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의 불출석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택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같은 날 대심판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재판에서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이 고씨가 안 나올 경우 대비해 노씨와 박씨를 예비적으로 신청했는데, 고씨가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 노씨와 박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는 앞서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불명 상태여서 증인출석요구서도 전달하지 못했고 예정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입장 정리에 따라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고씨가 불출석할 경우 노씨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dandy@news1.kr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로 재판돼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암시한 '중대결심' 반복...왜?

지연전략 비판 의식한 듯... '득 보다 실 많다' 판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반복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1일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종환 변호사는 앞서 언급했던 대리인단 총사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현재가 신속한 재판진행 필요성을 강조하자 현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했다.

이에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종환 변호사도 대리인단 총사퇴를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 등 향후 거취 표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대리인단 총사퇴 이후 다시 대리인단을 꾸리고 기록검토 시간 등을 요청하면 심리 일정이 다소나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종환 변호사는 이날 총사퇴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리인단 총사퇴에 따른 재판지연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재판지연 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전략 수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니가스를 풍겨봤지만 헌법 학계와 법조계의 저항이 거센 것을 보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총사퇴를 해도 재판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비쳐진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회법 법무법인 우먼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대리인단 총사퇴를 할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재판부도 심판 절차를 중단하고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jurist@news1.kr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종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미소짓고 있다

불판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뼈있는 갈비, LA갈비, 통심, 갈비,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선스



BULPAN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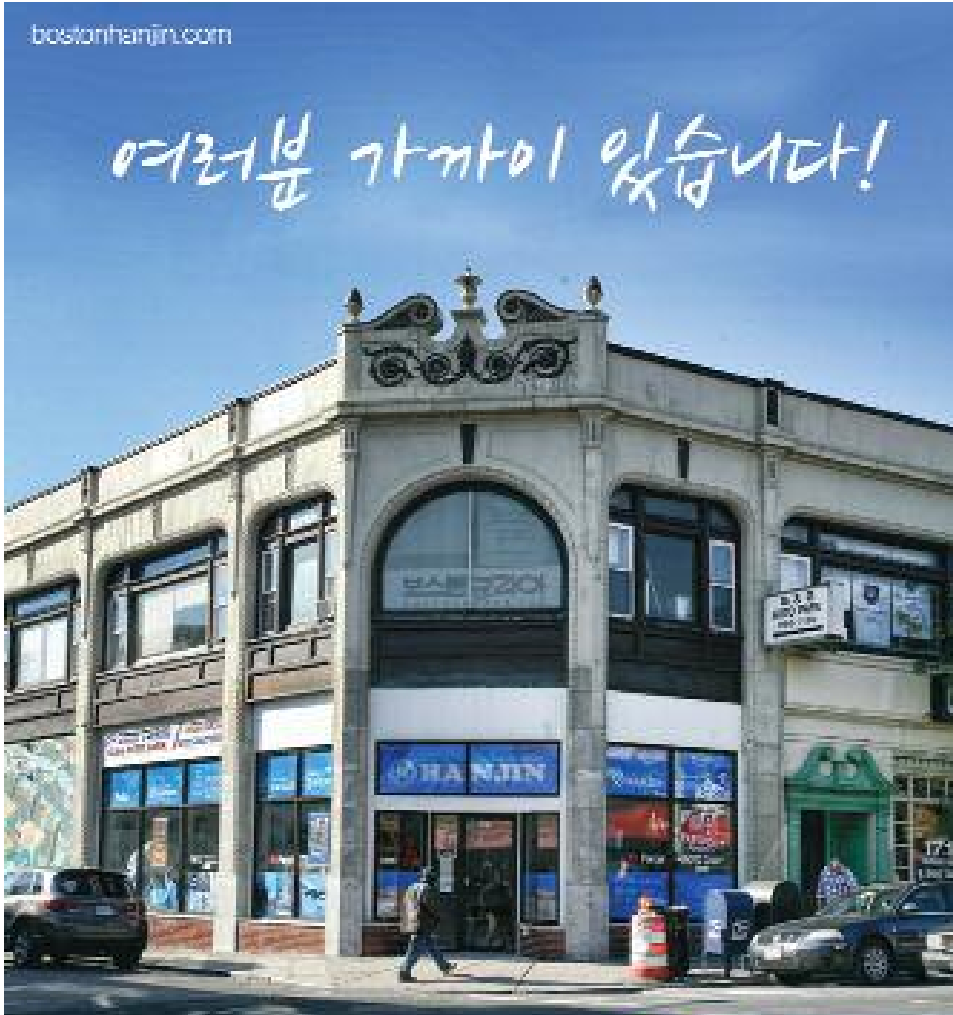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통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 부도 '한달'...출판계 '빙하기' 닥치나

대형출판사에 비해 불리한 유통관행 개선 필요 지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3일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이 부도를 낸 지 한 달이 됐다. 2000개 중소 출판사와 1000개 동네 서점의 연결고리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출판계에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작은 출판사의 고사에 따른 출판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러온 혼란한 정국에 도서 판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사태를 해결할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송인서적 부도를 계기로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을 도입해 출판 유통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 고사 위기 처해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피해액은 총 67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형 출판사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봤고, 중소 출판사들도 수천만원 대의 부도 어음 및 미지급금 손실을 입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직원 1~5인 내외의 작은 출판사와 동네 서점의 연쇄 부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다행히 부도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는 송인서적 부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파산했거나 폐업했다는 작은 출판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한 돈과 개별적으로 융통한 재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버티고만 있다'는 분석이다.

즉 '부도나 파산의 유예일 뿐'이며, 아예 파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이 '고사'(枯死)하고 있다는 것이다. 450여 출판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송인 사태 후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로부터 손해액 관련 대출금 신청을 받았는데 심지어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신청한 작은 출판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가장 작은 형태인 1인 출판사는 직원도 따로 두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재택근무하며 이미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맨 곳들인데, 이들에겐 50만~100만원의 작은 액수도 그야말로 '생명수'가 된다는 게 출판인회의 측의 전언이다.

출판계 인사들은 "직원을 여러 명 둔 중소 출판사들은 월급을 못주고 인쇄소에 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작은 출판

사들은 부도조차도 못 낸다"며 "대신 서서히 말라 죽어가며 출판활동의 저조 현상이 곧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소 출판사나 1인출판사 중에는 판매량에 구애받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문서나 과학책을 내는 곳들이 많다"며 "묵묵히 책을 펴내고 있는 이들 작은 출판사들이 고사된다면 장기적으로 책의 다양성이 훼손돼 출판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작은 출판사에 더 불리한 유통 관행 개선해야

송인서적을 통한 동네 서점과 거래 비중이 높은 작은 출판사들은 불합리한 출판계의 유통 관행으로 인해 송인서적의 부도에 따른 타격을 대형 출판사보다 더 심각하게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서적을 비롯한 서적도매상들이 대체로 큰 출판사들에게는 받은 책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반면, 작은 출판사들에게는 늘 받은 책보다 작은 액수를 지불해 왔다는 비판이다.

한 군소 출판사의 편집자는 "우리가 장부상으로는 송인서적에 100만원의 책을 보냈는데, 송인서적에선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 항의하면 담당 직원은 높은 사람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연락이 잘 안되었다"고 했다.

한 출판 전문가는 "출판계에서 강자

에 해당하는 큰 출판사들은 송인서적과 거래를 정산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송인서적에 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작은 출판사들은 송인서적에게서 수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지만, 큰 출판사들은 대체로 현금이나 담보가 있는 어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을 싸게 공급하는 판매방식인 '매절' 때문에 작은 출판사들의 피해가 컸다는 주장도 나온다.

매절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쓰이는 용어로 '현금 지급, 대량구매, 반품 불가' 등의 조건을 붙여 상품을 싸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서적 도매상들은 작은 출판사의 경우에는 매절 조건에도 팔리지 않은 책을 반품했다. 한 출판 관계자는 "팔린 줄 알고 더 찍었던 책이 나중에 반품으로 돌아

와 손해를 본 경우가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작은 출판사들은 송인서적 부도 피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판매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출판 유통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출판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 유통정보를 알 수 있는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한 책에 맞춰 대금을 현금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출판계 관계자는 "서점들은 세원(稅源)이 노출되고 대형 출판사는 지금까지 유통방식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POS 시스템을 도입해 널리 보급해야 전체 출판계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gaungae@news1.kr



포켓몬이 가져온 나비효과?...외산게임 매출 상위권 '잠식'

'포켓몬고' 이어 '클래시로얄' 이용자도 급증...슈퍼마리오까지 가세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지난해말부터 '리니지2'가 장악했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넷마블게임즈·엔씨소프트가 시장을 주도했던 지난해 12월과 달리 설 연휴를 맞이해 국내에 상륙한 '포켓몬고'부터 출시 1주년을 맞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클래시로얄까지 연초에는 외산게임이 득세하는 양상이다.

2일 구글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 따르면 2월 첫주 매출 10위권에 '포켓몬고'를 비롯한 해외 게임 5종이 이름을 올렸다. 설 연휴 전날 출시됐던 '포켓몬고'가 이용자 700만명을 끌어모으며 매출 2위에 올랐고 출시 1주년을 맞은 슈퍼셀의 '클래시로얄'도 4위 자리를 차지하며 넷마블의 게임들을 제치고 매출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외에도 일본 반다이남코가 개발한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가 8위, 슈퍼셀의 클래시오브클랜이 9위, 웹젠의 지적재산권(IP)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뮤오리진'이 10위에 오르면서 외산게임이 매출 순위 10위권의 절반가량을 잠식했다.

한달 전만해도 매출 10위권에 2개 정도에 불과했던 외산 게임이 어느덧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주축으로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선 "포켓몬고의 초반 흥행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포켓몬고가 흥행하면서 모두의마블과 프렌즈·애니팡 시리즈 등 국내 개발사가 만든 캐주얼 장르의 이용자가 급감했고 '리니지2'와 '포켓몬고' 두중에 매출이 집중되면서 그 아래 게임들의 순위 변동이 잦아진 것"이라며 "포켓몬고의 흥행을 기회로 외산업체가 마케팅비를 집중 투입한 점도 변화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닌스코리안클릭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 게임 이용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리니지2'의 순이용자는 130만명에 그친데 반해, 지상과 광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클래시로얄의 이용자는 140만명으로 오히려 더 높았다. 리니지2의 순이용자가 12월까지만해도 200만명에 달했지만 출시 한달을 맞이하면서 이탈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포켓몬고'의 주중 이용자 지표가 공개되면

'리니지2' 이용자의 감소폭은 더욱 클 것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여기에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런'까지 지난 1일 국내에 정식 출시되면서 PC게임 시장에 이어 모바일 시장까지 외산업체가 주도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가 RPG 장르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RPG 장르가 여전히 국내 시장의 대세로 자리하고 있긴 하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갈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AR 등 미래기술과 IP를 결합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야 '오버워치'에 밀린 토종 PC 게임사들의 꼴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sh5998688@news1.kr



25일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내 포켓 스탬프 기억의 기둥 앞에서 대학생들이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즐기고 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17학년도 봄학기 등록부 *

www.ksneusa.org (1975~2017 개교 42주년)



◆ 2017봄학기 일정: 2017년 2월 25일 ~ 6월 17일 (졸업식 & 학예발표회)

*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2월 25일(토) 오전 8시 반(강당)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20)

➔ 병아리(2.5-3세) 기초1(해님 & 달님반), 통반(이중언어)→선학순/약간명

◆ 학교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등록기간: 재학생은 2월 11일까지 * 신입생 2월 18일까지 등록 마감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1) **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음악교육(1-4반), 작문교육(1-3반), 서예,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교육 및 기타

(2) **오후반: 12:45-1:45pm**: 미술반, 한국화반, 발레반, 태권도반, 사물놀이팀, 펜싱팀, 서예반, 중국어(기초), 오케스트라(오전 8:30-9:25)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1) 오전: \$340/1명 *\$610/2 *\$760/3 (2) 오후반: \$120/1 (3) 병아리반: \$160

(2) 자녀 이중언어반에 등록하는 부모의 성인반 등록 경우: 50% 장학금

(3) 자녀 2인 이상 등록 시에는 3회까지 등록금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1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www.ksneusa.org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508) 842-1551(F)

◆ Email: ksneusa@verizon.net / 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함께 수고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함께 2세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교사 모집 부문: 한글, 문화, 역사 및 오후 특별활동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록부 (Registration Form) ▶

(2016 가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합니다)

*한글이름: (1) _____ (2) _____ (3) _____

영문 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남(Male) _____ 여(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6년 가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 _____ 집전화: 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 가능한 자세히 ▶

★ 말하기 (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_____

★ 쓰기 (Writing):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 \$610/2, \$760/3명 (병아리반: \$160)

오후반 수업료 \$ _____ (1st Choice: _____ 반)

_____ (2nd Choice: _____ 반)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Donation)를 부탁드립니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 및 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6학년도 봄학기 신입생/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2월 25일 오전 8시 30분 → 학교 강당 ★



마이클 리 모기지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융합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론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148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loria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978.314.8818



마이클 리 종합 보험



의료보험/생명보험/연금보험
메디케어/상해보험
스몰 비즈니스 벤처캐피탈
인슈어런스 브로커

2017년 의료보험 평균 20%이상 인상 OPEN-ENROLLMENT 의료보험 무료 상담

www.MyInsuranceMA.com (한국어 웹사이트)

**2017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의료보험도 인상을 대체하는 보조물품

Accident, Disability, Active Care
사고시 의료보험과 무관한 혜택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컴 프로텍션 플랜
암, 심장병, 뇌졸중 보험



Michael Lee
National Fire Insurance Co., 176017
Massachusetts License No. 273480
Licensed in Health, Life,
Accident, Sickness, &
Property & Casualty (in process)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플랜

모기지 프로텍션 플랜
학자금 저축 플랜
무자성 있어 안전한 연금플랜
Express Term Life
Universal/Whole Life

Health/Life/Disability/Medicare/
Disability/Long Term Care/
Retirement IRAs Insurance Broker

Health Crossroads/MA/USDA
approved broker

MA, 모든 영구인수권사 eastern agent:
NOR, FARM, HFC, MetLife,
Hartford, Pru, New York, & etc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Hudson
Littleton
Maynard
Norwood
Plymouth
Woburn
Westborough
Whitinsville
Vernon Hills Port

Maine
Kennebunk
Portland
Saco
Salem

Rhode Island
Newport

LEXINGTON/BOSTON OFFICE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Angela Eleazar
617.319.6657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Vicky Xiao
617.480.6362



Johanna Parlon
978.501.4753

수퍼볼 진출한 패트리어츠의 주요 기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기이자 단일 게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수퍼볼 경기가 오는 5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다. 올해 수퍼볼은 이미 수퍼볼 우승 반지를 4개나 갖고 있는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와 처음으로 수퍼볼에 진출한 팔콘스의 쿼터백 맷 라이언의 맞대결이 가장 큰 볼거리다.

수퍼볼 경기에 앞서 패트리어츠 팬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10가지 주요 기록을 정리해보았다.

1. 패트리어츠는 이번 수퍼볼이 9번째 수퍼볼 경기다. 이전까지 패트리어츠는 브롱코스, 카우보이스, 스틸러스(수퍼볼 8회 진출)와 함께 수퍼볼에 가장 많이 진출한 팀 공동 1위였으나, 이번 수퍼볼 이후에는 패트리어츠가 단독 1위 팀이 된다.

2. 패트리어츠가 이번 수퍼볼에게 패한다면, 브롱코스(수퍼볼 전적 3승 5패)와 함께 수퍼볼에서 가장 많이 패한 팀이 된다. 만약에 이번 수퍼볼에서 이긴다면 스틸러스(6승 2패)에 이어 카우보이스(5승 3패), 나이언스(5승 1패)와 함께 수퍼볼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2번째 팀이 된다.

3. 쿼터백 탐 브래디는 수퍼볼 통산

기록에서 패스 성공(164회), 패싱 야드(1,605야드), 패싱 터치다운(13회)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4. 패트리어츠는 브래디가 스타팅 쿼터백이 된 2001년 이후로 팔콘스와 4번 만나 모두 승리했다. 팔콘스는 브래디가 스타팅 쿼터백으로 출전했을 때 패배한 적이 없는 7팀 중 하나이다.

5. 수퍼볼이 열리는 2월 5일에 브래디는 만으로 39세 186일이 된다. 브래디는 작년에 브롱코스 쿼터백으로 출전했던 페이튼 매닝에 이어 수퍼볼 경기에 출전하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쿼터백이다. 만약 브래디가 수퍼볼 MVP가 된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수퍼볼 MVP인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이 수퍼볼 MVP를 수상한 선수가 된다.

6. 51회 수퍼볼은 빌 벨리치 감독의 36번째 포스트시즌 경기다. 풋볼 역사상 가장 많이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른 감독 공동 1위가 되는 것이다.

7. 2년 전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서 우승할 때 벨리치 감독은 3번째로 나이가 많은 감독이었다. 이번에도 수퍼볼에서 우승한다면 역사상 2번째로 나이가 많은 수퍼볼 우승 감독이 된다.

8. 패트리어츠는 정규시즌에 NFL



2년 전 수퍼볼 경기에서 승리했던 패트리어츠는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허용하는 팀(경기당 15.6점)이었다. 패트리어츠 팀 역사상 2번째이며, 패트리어츠가 처음으로 가장 적은 점수를 허용했던 2003년에 패트리어츠는 수퍼볼에서 우승했다.

9. 패트리어츠는 브래디-벨리치 조

합으로 수퍼볼 경기를 치렀던 지난 6번의 수퍼볼에서 1쿼터에 한 번도 득점을 한 적이 없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정규시즌 동안 1쿼터에 130점을 득점했으며 NFL에서 2번째로 많은 점수다. 1쿼터에 가장 많은 점수를 득점한 팀은 팔콘스로 139점이다.

10. 부상에서 재기에 성공한 디온 루이스는 지난 2시즌 동안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패트리어츠에서 16경기를 소화했다. 그리고 디온 루이스가 출전했던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는 모두 승리했다.

jsi@bostonkorea.com

'죽기 살기로' 나서는 박병호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죽기 살기로 하겠다."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의 새해 각오가 남다르다.

그는 1일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하면서 "입지가 불안해졌다. 스프링캠프에서도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2017시즌을 앞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박병호는 1285만달러 포스팅금액에 4년 1200만달러(5년 최대 1800만달러)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떠났다. 시즌 초반인 4월, 그는 19경기에서 6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에 이은 또다른 KBO출신 타자의 성공 신화를 쓰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속구에 약점을 노출하며 타율이 떨어졌다. 7월 마이너리그 강등을 경험한 박병호는 더이상 주전 출장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 겨울, 절치부심한 박병호는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2017시즌 메이저리그 복귀를 준비했다. 약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주전으로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기회를 보장받느냐다. 박병호가 로체스터 레드윙스(미

네소타 산하 트리플A팀)로 내려간 뒤 케니 바르가스(27)가 빅리그로 올라왔다. 바르가스는 지난해 7월부터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라 47경기 출전 타율 0.230 10홈런 20타점을 기록했다. 62경기에서 나와 타율 0.191 12홈런 24타점을 기록한 박병호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였다.

만약 박병호가 시즌 개막 전까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미네소타는 바르가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박병호의 과제는 결국 타율이다. 경쟁자인 바르가스는 지난 3년 간 해마다 50여경기에 출장하며 백업으로 활약했다. 그는 데뷔 시즌에 타율 0.274를 기록했지만 점점 타율이 낮아지고 있다.

박병호가 준비한대로 간절해진 타격폼으로 메이저리그의 빠른 속구를 쳐내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대다.

독하게 몸을 만들며 타격폼까지 수정했다는 박병호의 겨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maeng@news1.kr

美매체 "박병호 성공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의 메이저리그 2년 차 전망이 밝다는 현지 매체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구 통계전문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1일 박병호의 메이저리그 두번째 시즌을 예상하며 기대감을 잃지 않았다.

매체는 박병호가 삼진 비율을 줄이는 등 컨택률을 높인다면 빅리그 2년 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병호의 장점은 힘이다. 박병호는 2016시즌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고 12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4~6월, 3개월 동안 올린 기록이다. 매체는 "박병호는 지난 시즌 파워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제는 정확도다. 매체는 "박병호가 자신의 힘을 자주 보여 주진 못했다. 컨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병호는 빅리그에서 12홈런을 기록하는 동안 삼진 80개를 기록했다. 매체는 박병호의 월별 삼진 비율(4월 30.1%·5월

32.6%·6월 35.5%)이 높아졌다는 걸 지적했다. 실제 박병호는 4월부터 6월까지 타율도 떨어지면서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로 빅리그 첫 시즌을 마감했다.

박병호는 지난해 7월 로체스터 레드윙스(미네소타 산하 트리플A팀)로 강등된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체스터 유니폼을 입은 박병호는 31경기에서 10홈런을 때려냈지만 타율은 0.224에 그쳤다.

그럼에도 팬그래프닷컴은 "박병호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삼진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크리스 브라

이언트(시카고 컵스)와 폴 골드슈미츠(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빅리그 첫 시즌에 약 30%대 삼진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약 22%까지 떨어뜨렸다. 박병호

도 빅리그 투수에 적응하게 되면 문제 없다는 의미다.

앞서 팬그래프닷컴은 댄 짐보스키가 고안한 예측 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를 통해 박병호가 2017시즌에 타율 0.255에 21홈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시즌보다 상승한 수치다.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 풀타임 소화를 노리는 박병호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떠나 2월 중순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몸을 만들 예정이다.

maeng@news1.kr



빅리그 2년 차를 맞은 박병호

POS 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훌륭한 전통상화림,
 소중한 내 아가씨와 한국외 마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집하게!







- 고객을 더하는 최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가림시와 천기, 골기

- 최격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훌륭한 삼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에이어에 있는 청계식품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T. 978-772-5213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북부 보스톤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구함. 풀타임. 초보자 환영
T. 978-462-9951

렉싱턴에 있는 식당. 웨이터 또는 웨이
트레스 및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781-860-0171 (Kay)

MA 운전면허증

- 신규 및 갱신 (Renewal)
 - 타주면허증 당일 재발급
 - 한국면허증 소유자 무시험 교환
 - 소셜번호 없는 분도 환영
 - * 운전면허 어려움 있는 분 상담
- T: 857.615.1416, 917.340.0595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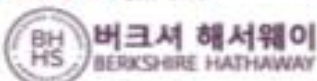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매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트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도연맹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0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회	857-998-7043
재한한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복5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예수제일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허스트 한인장로교회	781-326-9009
엘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위임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중.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온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3734
압구정동달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디케어	508-734-0446
타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웅)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은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덕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리빙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름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치산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뉴스타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건강검진! 언제, 왜 받아야 하나요?"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병원' ...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나 신체변화를 조기에 발견해야"

매년 새해가 되면서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다짐을 해보고는 한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에 대한 다짐일 것이다.

이번주 휴람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자.

건강 검진이란 질병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나 신체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대 초반부터 주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암 정밀 검진은 40대부터,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성인병 정밀검진은 가족력이 있다면 30대부터, 가족력이 없으면 40대부터 필요하다. 또 우울증과 치매 등의 정신건강 정밀 검사는 60대 이후부터 추천한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신호를 느낀다면, 검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암 검진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연령별 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

중·장년기(40세~64세) 이후 건강 검진은 대체적으로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 검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50대~60대의 경우 당뇨병·고혈압이 있거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다면 뇌검사와 심장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50대 여성의 경우 폐경이 왔다고 해도 부인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동맥경화증과 함께 협심증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대 남성의 경우 전립선비대증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전립선 종양표지자(PSA)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65세가 넘으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특히 시력·청력 등 감각기능이 뚜렷이 떨어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 비율도 늘어나기에 안과검사가 필요하다. 우울증 선별검

사나 인지기능 평가(치매), 뇌 영상검사(해마 MRI, 뇌 MRI+MRA, 기타 특수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1/3은 예방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암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암 검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①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발견된 경우 : 위염이 만성이 되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주름지는 것을 '위축성 위염' 이라고 한다.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만 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환자 중 1% 미만에서 위선암이 발생한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자체만으로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위암은 여러 유전적 요인,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인자와 환경적인 발암 물질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환자가 치료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제균을 고려할 수 있고, 위축성 위염의 경우 1년에 1회씩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음식을 싱겁게 먹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②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정도 피워온 흡연자 : 흡연은 가장 중요한 폐암의 위험인자다. 모든 폐암의 약 90%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인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폐암의 예방을 위해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고하고, 금연보조약물 등을 이용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③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30대 여성 : 한국유방암학회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후 1~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고한다. 권고안과는 별도로 가족력이 있거나 한 쪽에 이미 유방암 발생 경력 등이 있는 고발생 위험군에서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검진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통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허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밀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지 (\$299, \$3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알리안트 PPO, 메디케어, 메디icaid, 유방암/어혈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보스턴 건스태드 카이로프랙틱

Tel. 617.277.0648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e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재심 · 군함도 · 택시운전사 2017년 기대되는 실화 소재 영화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스릴러, 범죄 오락물, 코미디 등 색깔 있는 장르 영화들이 시기에 따라 사랑 받아온 가운데 2017년은 실화 영화들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2월 영화 '재심'부터 여름 '군함도', 하반기 '택시운전사'까지 굵직한 소재의 실화 영화들이 개봉 대기 중이다.

먼저 오는 16일 개봉을 확정된 '재심'은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버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가 다시 한번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충무로의 연기와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동휘 등 배우들과 김태운 감독이 손을 잡아 영화를 완성했다. 제작진은 SBS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의 심도 깊은 만남,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담은 진정성 있는 시나리오를 세상에 내놨다. 현재까지도 본 사건이 재판과 정 중에 있어 영화 개봉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론칭 예고편 공개 만으로도 단숨에 여름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른 류승완 감독의 신작 '군함도' 역시 실화 소재의 영화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하시마,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 불림)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을 당했던 '군함도'의 숨겨진 역사를 모티브로 류

승완 감독이 새롭게 창조할 이야기와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정현 등 파워풀한 캐스팅이 함께한 이 영화에 예비 관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해저 탄광, 허리조차 펴수 없는 그곳에서 몸을 웅크린 채 채굴 작업을 하는 조선인 소년들의 모습, 예고 없이 닥치는 가스 폭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은 "탈출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카피가 더해져 착취와 고난의 연속인 군함도 조선인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어 "이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조선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어선 안된다"는 일본인의 대사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군함도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모습과 촛불로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은 가슴 깊이 묵직한 전율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택시운전사'가 대기 중이다. '의형제', '고지전'의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신작 '택시운전사'는 1980년, 택시운전사가 취재에 나선 독일기자를 우연히 태워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80년 뜨거웠던 광주를 스크린에 담은 영화 '택시운전사'는 국민 배우 송강호, 유해진 외에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의 강렬한 배역 바론 볼프강 본 스트러커 역할을 맡았던 토마스 크레취만이 독일 기자 역에 캐스팅돼 화제를 낳은 바 있다.

aluem_chang@news1.kr

이전 홍길동은 잊어라 '역적' 관전 포인트 세가지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사극 명가 MBC가 야심 차게 준비한 2017년 첫 사극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하 역적)'의 서막이 마침내 오른다.

MBC 새 월화드라마 '역적' 측은 첫 방송을 앞둔 30일 작품의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스타 감독에 단단한 출연진, 흥미로운 소재로 중무장한 '역적'만의 관전 포인트가 눈길을 끈다.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한 홍길동은 잊어라...아기 장수 홍길동의 탄생

홍길동은 그간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 속 가상 인물로 여겨졌지만 사실 조선 연산군 시절 실존했던 인물이다. 서자로 태어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유구한 심상을 답습하는 대신, 홍길동에게 '씨종의 아들', '아기 장수'라는 새 옷을 입혔다. 가족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능상 척결의 시대를 뒤엎고자 했던 아버지의 뜨거운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 홍길동, 그 목직한 기운은 이전의 날렵한 홍길동과는 확연하게 달라 궁금증을 키운다.

특히 씨종의 자식임에도 민심을 사로잡은 홍길동(윤균상 분)과 임금임에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연산(김지석 분)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짚어낸다.

▶ '갓상중, 생애 최초로 노비로 변신...눈물 콧물 쏟으며 열연

왕, 영의정 등 사극에서는 줄곧 기득권을 연기했던 배우 김상중이 노비의 운명을 타고난 씨종(대대로 내려가며 종노릇을 하는 사람) 아모개로 과격 변신한다. 지적인 중후함의 아이콘 격인 그가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리고 허름한 옷을 걸친 모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라 흥미롭다.

차림새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양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콧물과 눈물을 범벅한 채로 절규하듯 애원하는 장면은 하이라이트 공개만으로도 크게 화제 될 만큼 신선한 충격이었다. 무자비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냉혈한 김상중 역시 '역적'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즐

거움이다.

▶ 윤균상+채수빈+김지석+이하늬가 만들 어갈 역대급 캐릭터

윤균상은 아기 장수로 태어난 홍길동을 맡아 30부 대작을 이끈다. 그의 건장한 체격이 역사를 표현하기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채수빈은 홍길동의 단 하나 뿐인 정인, 송가령 역을 맡았다. 송가령은 홍길동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 김지석은 희대의 폭군 연산을 맡아 처음으로 왕 연기에 도전, "인생 캐릭터,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국악과 전통 무용을 전공한 이하늬는 "기생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패였다. 그걸 '역적'을 위해 꺼냈다"며 역대급 장녹수의 탄생을 예고했다.

▶ 연출 장인 김진만 감독에 역사 전공자 황진영 작가가 만들어갈 연산군 시대

연출은 7개나 되는 다중인격을 촘촘하게 쌓아올린 '킬미, 힐미'와 2013년 정경 유착,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를 정조준한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으로 평단과 대중을 사로잡은 김진만 감독이 맡았다. 감독은 지난 25일 제작발표회에서 "그간 사극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화면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담담하게 따라가겠다"고 자신했다.

극본은 입봉작 MBC 광복절 특집극 '절정'으로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특집극 부문 대상을 거머쥔 황진영 작가가 집필한다. 이후에도 '제왕의 딸 수백향'을 통해 삼국시대의 첩보사를 치열하게 그려내며 시대극, 사극 분야에 특출함을 증명해 보인 황진영 작가가 연산군의 시대로 시선을 옮겨 다시 한번 특기를 발휘한다.

'역적'은 역사를 전공한 황진영 작가의 철저한 분석과 김진만 감독의 수려한 연출의 시너지로 시청자의 마음을 흠뻑 준비를 마쳤다. 무엇이 홍길동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을까. 인간으로 태어나 초인이 되었던 사내,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빛으로 간 사내, 홍길동의 자취는 이날 밤 10시 첫 방송되는 '역적'에서 공개된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1월 23일 ~ 2017년 1월 29일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9.3%
2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3.5%
3	SBS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17.9%
4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17.4%
5	SBS	설날특선대작(검사와전2부)	16.7%
6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16.6%
7	SBS	드라마스페셜(사임당빛의일기)	16.0%
8	KBS1	KBS9시뉴스	15.7%
9	KBS1	전국노래자랑	15.4%
10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14.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3	KBS2	TV소셜(저 하늘의 태양이)
4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6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7	SBS	드라마스페셜(사임당빛의일기)
8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9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10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기다렸다 가	다이아믹 듀오
02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3	에라 모르겠다	BIGBANG
04	행복한 척	수지
05	당신의 밤 (Feat. 오혁)	황광희 X 개코
06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7	Decalcomanie (데칼코마니)	마마무
08	TT	TWICE
09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10	저 별	헤이즈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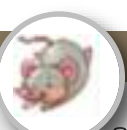
	6	3	1				4	
7			2					9
				9	4	3		
	7		4			1		
		4		8		6		
		6			9		7	
		8	3	6				
3					5			6
	1				2	7	3	

2월 5일 - 2월 1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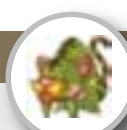
쥐띠 | 뿌듯하고 기분 좋은

●운수:어렵고 힘든 것이라 생각한 일도 거둔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금전: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운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애정: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7, 10일 길일, 9, 11일 주의.



소띠 | 거리를 두고 보아야

●운수: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금전:미리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걸보기에 남는 것 같아도 현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밖으로 삼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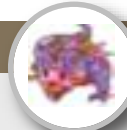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범띠 | 돌아가는 상황부터 살펴야

●운수: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을 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전:들어오는 것을 신경을 쓰느냐고 빠져나가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 못지않게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애정: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9, 10일 길일, 5, 11일 주의.



토끼띠 | 사랑이 꽃을 피우는

●운수: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꼭 잡고 있으면 순간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일이 연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사랑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애정이 샘솟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5, 8일 길일, 6,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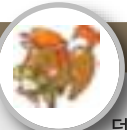
용띠 | 대인관계를 넓히고

●운수:이제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뭔가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전망이 밝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대인관계를 넓히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까.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좋은 혼처가 들어올 때입니다. 자손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6, 8일 길일, 5,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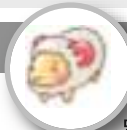
뱀띠 |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운수:머리만 복잡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단 잠시 쉬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가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애정: 남의 말보다 정작 중요한 가족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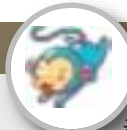
말띠 | 대를 얻게 되는

●운수: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기대감도 커집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욕심을 버리고 소를 희생시키는 마음을 내려보세요. 의외로 대를 얻게 되는 운세이니 크게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애정: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8, 10일 길일, 6, 9일 주의.



양띠 |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운수: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사회에서는 남보다 한 발 앞서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공간에 재물이 쌓여갑니다. ●애정:오로지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5, 9일 길일, 6, 7일 주의.



원숭이띠 | 아무리 급하더라도

●운수:바늘하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충대충하는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금전: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애정: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냐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지 마세요.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말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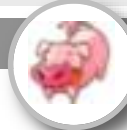
닭띠 | 옳고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운수:한번쯤은 관참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말 수습하기 어렵게 됩니다. ●금전: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격한 말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



개띠 | 웃을 일이 많아지니

●운수:필요가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너끈하게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금전: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애정:웃을 일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9일 길일, 7, 10일 주의.



돼지띠 | 인내심으로 버텨야

●운수: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를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놓친 것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으로 버텨야 합니다. ●애정: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

'신혼일기' 안재현♥구혜선 리얼하고 달콤한 그들이 사는 세상

(서울=연합뉴스) 명희숙 기자
= 진짜라서 더 설렌다. 안재현, 구혜선 부부의 일상을 담은 '신혼일기'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을 담은 달콤한 일기를 예고하고 있다.

'신혼일기'는 나영석 PD의 신규 프로젝트로, 가상 연애와 가상 결혼이 아닌 실제 연예인 부부 안재현, 구혜선의 리얼한 신혼 생활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신서유기'를 통해 나영석 PD의 새로운 예능 뮤즈로 떠오른 안재현이 이번에도 함께한다. 특히 안재현은 '신서유기'에서 사랑꾼으로서 매력을 유감없이 발사한 바. 그가 아내 구혜선과 그려낼 그림같은 신혼일기는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나영석 PD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능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고 설득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흘 후 두 사람이 승낙을 했다"고 안재현, 구혜선 부부 섭외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상과 다르다. 구혜선은 털털한 스타일이다. 반면 안재현은 놀아달라고 하



는 편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며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우형 PD 역시 두 사람에 대해 "6시간씩 이야기하고 싸우더라. 신혼부부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신혼일기'는 최근 가장 핫한 스타 커플의 일상을 지켜본다는 점을 통해 리얼리티의 진수를 예고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모습이 설렘부터 공감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예고하고 있어 흥미를 높이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해피투게더3' 김수용 "유재석은 여우다"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조동아리' 막내 유재석의 민낯이 강제 열린다.

오는 2일 방송되는 KBS2 '해피투게더3' (이하 해투)는 '토크 드림팀 2탄'으로 꾸며진다. 지난 주 녹슬지 않는 입담을 뽐내며 2주 방송을 만들어냈던 '감자골X조동아리' 김용만 박수홍 지식진 김수용 손현수가 안방에 또 한 번의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용만 박수홍 지식진 김수용이 국민MC가 아닌 조동아리 막내 유재석의 숨겨진 면모들을 모조리 폭로했다고 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날 김수용은 유재석을 '여우'라고 정의해 눈길을 끌었다. 유재석을 향해 "철 모를 때는 버릇없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스타가 되면서 오

히려 겸손해지고 배려심도 깊어졌다"며 똑똑한 여우에 비유했다. 그런가 하면 박수홍은 "재석이 1인자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형들이 사업도 망하고 지숙도 해보고 실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유재석은 조동아리 막내로 돌아가 에피소드들을 거침없이 풀어내며 게스트들 못지 않은 입담을 뽐냈다는 전언이다. '해투' 제작진은 "감자골X조동아리 멤버들이 정말 하얗게 불태우고 돌아가셨다. 유재석 역시 조동아리 막내로 돌아간 듯 평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토크에 참여했다"며 "2주분 방송인 탓에 평소보다 오랜 시간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hjk0706@news1.kr

김정민 "김구라와 열애설 진짜 아냐, 밥도 안 먹었다"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방송인 김정민이 김구라와 열애설에 못을 박았다.

김정민은 1일 밤 11시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 512회 '위기탈출 넘버5' 특집에서 최근 화제가 됐던 김구라

와 열애설을 언급, 강력히 부인했다.

김정민은 "아니 땀 굴뚝에 연기가 뻐끔뻐끔 나서 너무나 당황했다. 일단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라디오스타' MC들이 "조금의 여지도 없냐" "따로 밥도 안 먹었냐"라고 질문하자 김정민은 "한 번도

안 먹었다"라고 답했다.

김정민은 "너무 김구라 씨께 화가 난 게 뭐냐면, 본인이 해명하고 너무 본인이 싫어하더라. 싫어도 제가 더 싫을 거 아니냐"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hjk0706@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0498 • G07 • L005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1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2	MBC	불어라 미풍아
3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SBS	사랑은 방울방울
5	MBC	행복을 주는 사람
6	KBS	빛나라 은수
7	SBS	사임당 빛의 일기
8	MBC	황금주머니
9	MBC	언제나 봄날
10	KBS	다시 첫사랑

티보플레이 1월 4째주 신규 방송

1	SBS	피고인
2	SBS	사임당 빛의 일기
3	MBC	사십춘기

티보플레이 1월 4째주 최신 영화

1	여교사	김하늘
---	-----	-----

정준하X권상우, 사춘기보다 엉뚱한 '사십춘기'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정준하, 권상우의 좌충우돌 여행기가 시작됐다.

28일 첫 방송된 MBC '사십춘기'에서는 집을 나선 권상우, 정준하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는 정준하 아들 로하가 등장했다. 로하는 "우리 아빠를 소개한다. 우리 아빠는 엄청 크고 이가 뾰족뾰족하다. 우리 아빠 어디 갔냐. 우리 아빠를 찾아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정준하 소개 이 외에도 로하는 지속적으로 내레이션에 등장해 훈훈함을 자랑했다.

정준하는 권상우와 만나 본격적인 가출 계획을 짰다. 권상우는 "바빠서 전처럼 못 만나게 됐다. 사실 저는 한창 같이 다니던 그때가 많이 생각한다. 혼란의 시대를 돌파하고 다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여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정준하는 제주도에 갈 것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급하게 제주도로 향했다. 하지만 권상우가 계속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고 싶다고 어필했고 결국 두 사람은 그날 밤 비행기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두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다녔다. 러시아 음식을 안 못보여 러시아식 사우나인 반야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반야를 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reddgreen35@news1.kr



'여교사', 열등감이 만들어낸 '시대의 악마'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 '여교사'는 계약직 여교사의 불안감과 열등감 그리고 질투를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다. 이 작품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단지 여성 캐릭터의 심리 변화나 애정관계의 충돌에 집중하지 않고 흡수자와 금수저, 계약직과 정규직 등의 현실 문제를 폭넓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교사'에서는 무엇보다 김하늘의 연기가 놀랍다. 피로감 가득한 무기력한 얼굴에서 피어나는 한자락의 애처로움이 효주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태수 촬영 감독은 "'여교사'의 가장 특별한 매력은 김하늘의 얼굴이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해냈다"고 말했다.

여교사'는 영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음울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후반부에는 지나치게 선을 넘어버린, 과격적 설정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한 편의 영화에서 배우들의 이토록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관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다.

uu84@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On-demand, TBO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턴 한인 야구리그 2017 신입선수 모집 !

The 2017 BKBL Draft is set for Saturday, February 25

Beginners to Advance level

Welcome to tryout~

일시 :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BL.info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걱정 말아요, 엄마!!

"엄마,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걱정 말아요, 엄마!!"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은 내 엄마한테 가끔 운전하며 엄마에게 말을 건넬 때가 있다. 내게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다. 다른 장소보다는 이상하게도 운전대에 막 올라 시동을 켜기 전 기도처럼 엄마를 떠올리곤 한다. 물론, 즐거울 때보다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더욱 떠오르는 얼굴이 엄마이지 않던가. 이렇게 엄마랑 애길 하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다.

그랬으리라, 내 엄마도 철없는 늦둥이 막내딸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리라. 멀리 있던 막내딸을 두고 어찌 눈을 감고 가셨을까. 가끔 내 엄마가 몹시도 그리운 날이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우리네 삶이고 인생이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픈 마음을 달래보는 것이다. 내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그 극진한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깨달아 알 때 즈음 그때는 이미 내 곁에 아니

계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나눠주며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를 합리화시키고 위로하며 오늘을 사는가 싶다.

우리 집 딸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다. 그리고 젊은 아빠 엄마와 덩치 큰 남자 동생을 양쪽에 늘 거느리며 다니는 아이다. 내게는 딸아이가 참으로 부러운 대상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버지 원에 얻은 막내딸이라 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였으니 젊은 아버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은 본 적이 더욱이 없었다. 그리고 딸만 넷이 있고 터울이 다섯 살 이상씩 되는 가정에서 늦둥이 막내로 자라 부모님께 늘 귀염둥이로 자랐지만, 포레가 없어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이 더 많다.

그래서일까, 가끔은 딸아이가 부러울 때가 있다. 세 아이가 연년생으로 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다는 생각을 한다. 딸아이가 지난 1월에 만 스물 일곱 살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일찍 결혼한다던 딸아이 말은 이제는

물 건너간 얘기라고 요즘 가족들이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한다. 자유분방한 엄마의 거침없는 생활 방식에 이 아이는 무엇인가 볼 만이 많은 편이었다. 세 아이의 청소년기에도 아들 녀석 둘보다 딸아이가 더 많이 부딪쳤던 기억이다. 나이가 한둘 더 늘수록 요즘은 엄마를 많이 이해하는가 싶다.

딸아이는 대학에서 아라빅 히스토리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졸업 후 하고 싶어 하던 선생이 되어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9학년 담임을 맡아 즐거워했었다. 그렇게 두세 달을 지내며 가르치는 일보다는 덩치 큰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하는 농담(Joke) 버거웠던 모양이다. 집에 오면 몇 차례씩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못 들은 척 넘겼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서 엄마 아빠한테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딸아이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힘들게 얻은 선생님 자리를 무작정 그만두라 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교사 생활이 버겁다는 딸아이 얘기를 듣고 부모로서 무작정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딸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딸아이는 결국 학교 몇을 골라 임시교사가 되어 바쁘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것도 쉽지 않을 일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를 찾아다니려니 버거웠을 것이다. 그 후로는 모르는 척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중에서야 마주 앉아 딸아이에게 부모로서 한 마디 해주었다. 직장을 그만둘 때는 다른 곳을 미리 찾아 정해놓고 그만두는 것이 순서라고 말이다.

걱정은 늘 부모의 몫인지도 모른다. 내 어머니도 일찍 떨어져 살던 늦둥이 막내딸을 늘 걱정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딸아이를 걱정하는 이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딸아이는 제 몫만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 교사생활을 하던 딸아이가 지난해 초쯤 한 곳에 임시 직장을 얻어 다니고 있었다. 그곳이 어디냐고 자세히 묻지도 않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까. '걱정 말아요, 엄마!!' 하며 딸아이는 하는 일이 즐겁다며 열심히 다니더니 지난해 8월 '하버드 대학교' 내 정식 직원이 되었다. 걱정했던 엄마는 모두가 감사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고바우 영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문은 읽는게 아니다. '신문을 본다' 라고했다. 고바우영감. 동아일보에 실렸었다. 사회면 원편 웃자리에 4단 만화였다. 신문을 펴들면 만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고바우영감의 한마디는 언제나 날카로웠다. 자주 혀를 찼고 기막혀 했으며, 놀라 그의 한가닥 머리카락이 꼬부라졌다. 만화도 신문처럼 본다고 말한다.

작년 11월 모요일, 한국 중앙지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韓자 장면 맛 본 중국인들 "맛이 왜 이래...짬뽕은?"'. 인터넷 버전 기사라 해도 그렇다. 이 기사가 일면에 실렸다. 차라리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또 있다. 한창 탄핵 말이 나올적이다. 논설위원의 글 제목이다. '탄핵으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소월素月도 역정낼 것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논설위원의 글 제목 치고는 치졸하다. 유치하다 해야 하나. 우습지도 않은 제목 덕에 아예 정나미가 떨어졌다. 시인 김수영이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

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

이십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김수영, 어느날 고궁을 나서며 중에서)

고등학교 적이다. 국어나 일반사회 선생님들은 신문사설을 읽으라 요구했다. 골치아픈 내용일테지만 그래도 읽어야 하나 보았다. 그때 선생님께 들은 말이 있다. 양비론兩非論. 정부여당도 그릇됐고, 야당도 잘못한다는 말을 슬쩍 넣었던 거다. 그 래야 마치 공평한 것처럼 말이다. 그럴수 밖에 없을 때다.

미국신문도 크게 다들게 없는 듯 하다. 대통령 선거뒤, 뉴욕타임즈 컬럼을 몇개 주워 읽었다.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비난일색이다. 찌라시같은 허접한 글도 제법 없지않다.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전前후보자가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부추긴다. 출마해야 하는 이유가 눈물겹다.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원한 怨恨을 풀자는 거다. 소설도 이런 삼류가 없다. 그러니 뉴욕타임즈와 트럼프대통령은 사이가 좋을리 없다. 기자가 물었다. 뉴욕타임즈를 읽느냐? 대통령 대답이 결정적이다. '읽는다. 그런데, 읽지 않는다면 이십년은 더 살수 있겠다.'

고바우영감은 오늘 한국을 보면 뭐라 한마디 할겐가? 트럼프대통령 취임에 무슨 말을 던질 건가? 그의 머리가 또 꼬부라질 건가? 그나저나 고바우영감도 많이 늙었을 거다. 안녕하신가?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2.5 inch Superwide LCD Cluster Display, Navigation System

MSRP, As shown, MS21120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standard safety features

MSRP, As shown, MS20999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Navigation, 8-Speakers, 18000 Miles, 17 inch Alloy Wheels, 16000 Miles, 17 inch Alloy Wheels

MSRP, As shown, MS211529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Plus,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traffic alert, 17 inch Alloy

MSRP, As shown, MS211997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7 inch Alloy, Fog Lights

MSRP, As shown, MS211628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er Blind Spot Warning, 5 inch Color Touchscreen,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MSRP, As shown, MS211296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17 inch Alloy Wheels, Bluetooth, 18000 Miles

MSRP, As shown, MS211805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7 inch Alloy, Fog Lights

MSRP, As shown, MS211642



LEASE
\$189/mo.

MSRP
\$29,003

FINANCE
0% APR

Lease term: 36 months
Lease start: 1/1/2018
Lease end: 12/31/2020
Lease mileage: 10,000 miles per year
Lease type: Closed-end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8%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케어의 속앓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무를 오바마케어 종료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으로 시작하였다. 이보다 수일 앞서 공화당 다수의 국회는 오바마케어 지원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의 두 조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한발 더 나아가 저렴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트럼프케어로 대체할 것을 약속하였다. 10년 만에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공화당은 의기충천하여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라는 선거공약 제1호를 일사천리하게 성취할 것을 국민에게 공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알맹이가 없는 허세임이 드러났다.

지난주, 공화당 상하원의원은 당 정책을 구상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필라델피아에서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의 음성녹음이 몇몇 주요 언론에 의명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 녹음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판 공지에 빠져 있고, 적절한 보험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끔찍 앓고 있다는 이미 알려진 사안을 재확인하였다. 공화당의 첫 고민은 저렴한 보험제도를 만들 수 없는 데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보험 의무화와 무보험벌금은 시민의 기본 자유를 정부가 구속한다고 하여 공화당은 절대 반대다. (자동차 보험도 의무적인데, 하물며 사람 보험은 아니라니, 이해가 안 된다.) 의무와 벌금이 없으면 건강하거나, 아프면 들지 하는 암체적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입자 대부분이 성인병이 있거나 암 환자이면, 저렴한 보험을 팔아서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도 그 벌금액이 적어, 젊은 층의 가입률이 낮아,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였던 전례도 있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 방법은 보험가입자 수를 많게하여 저렴한 보험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보조에 쓰일 세금징수는 금기이고, 정부의 국한된 역할을 고수하는 보수의 정치이념에 상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 결론은 공화당 울타리 안에서는 저렴한 보험을 찾을 수 없다.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거주 지역 외의 타 주 보험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보험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하여, 보험료가 낮아 진다는 논리다. 또한 보험혜택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각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살 수 있

게 하는 방안이다. 50대 독신 남성이 임신과 산아 혜택이 필수로 포함된 오바마케어를 구매하는 년센스는 면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최저 보험혜택 규정이 없어 혜택이 빈약한 싼 보험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실상 싼 보험을 저렴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별도로 건강저축계정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소득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제도)와 택스크레딧을 병용하려고 한다. 이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되는 중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공화당의 다른 걱정은 폐기와 대체과정에서 예상되는 보험회사가 겪을 혼란이다. 트럼프케어는 가입 참여 정도와 가입자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사업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업계가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자체 경비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아 년 350억 불의 재정 흑자까지 내고 있다. 따라서 폐기를 하면 350억불도 함께 없어진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현 실정에 간과하기 쉽지 않다. 폐기에 성공한다 하여도 트럼

프케어 입법은 현 국회 구성으로는 공화당 단독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만약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사진행방해 전술을 쓰면 입법할 수 없다.

정치적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조속한 폐기와 대체를 요구하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루어 낼 수 없다. 지난 7년 긴 기간에도 오바마케어 폐기만을 외쳤지, 자체의 보험안은 만들지 못한 터라, 졸속을 면하기 어렵다. 오바마케어로 보험을 갖게된 2천2백만에게는 보험혜택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하였다.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여성건강진료소(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지원 여부로 여론이 양분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18개월 후 다가올 중간선거로 국회 판도가 바뀌는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넘어야만 하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트럼프케어는 속앓이하고 있다.

봉사회 사이트 <http://www.bassi.org> 를 방문하여 메디케어, 매스헬스, 오바마케어 등 여러 필요한 기본지식을 알아 보십시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4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1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김대문의 화랑세기, [그 때 이화공 二花公은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아 낭도에 대하여 싫증이 났다. 이에 공을 5세 풍월주로 삼았다. 공의 포제胞弟인 설원랑薛原郎을 부제로 삼았는데 나이가 13살이었다. ... 설성이 출전하여 사다함이 ...에 당하여 ...하고 죽었다. 이에 이르러 우리들이 기려 말하기를 그대의 설성은 ..., 사다함공의 신하인 무관랑 또한 공이 많았는데 미천하여 보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공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금진낭주는 평소애 색에 빠졌다. 많이..., 무관랑을 몰래 끌어들었다. 무관랑은 사다함을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사다함은 위로하여 말하기를 "네가 아니라, 어머니 탓이다. 나와 더불어 ..., ...벗으로 어찌 작은 혐의를 문제 삼겠는가" 했다. 금진이 듣게 되어..., ...스스로 도리를 알았다. 나에게 너그러운 것은 곧 ... 무관랑 ..., 사다함이 함께 출입했다. 낭도들 중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관랑은 도망하고자 하여 ...밤에 궁의 담장을 넘다가 구지溝池에 떨어져 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4세 풍월주 이화랑은 왕의 총애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진흥왕의 모후인 지소태후의 사랑 또한 많이 받았다. 이화랑은 지소의 딸인 숙

명공주(아버지는 태종공, 진흥왕의 동복 오누이였지만 왕비이기도 하였다)와 서로 사랑에 빠져 그녀와 함께 심야에 월담하여 궁성 밖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또한 지소태후는 이화랑을 곁에두고 침신으로 삼아서 만호낭주를 낳기도 하였다. 현대의 성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지만 골骨的 계승을 위한 신국神國의 도道는 모녀가 한 지아비를 공유하였다. 화랑세기에는 성골, 진골이 나오질 않고 인맥姻脈의 두줄기인 대원신통과 진골정통이 나온다. 대원신통은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왕후 박 씨 계통이며, 진골정통은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 김씨 계통이다. 금진낭주와 같이 색사에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원신통과 진골정통의 여인들의 혼인과 색공은 자신들의 계통을 보전하기 위한 인맥姻脈의 형성이었다. 일례로 만호(아버지 이화랑, 어머니 지소태후)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3명의 남자(남편)가 있었다. 첫째는 동륜태자인데 동륜은 진흥왕과 사도왕후 박 씨의 아들이다. 만호는 동륜과 함께 장남 김백정(진평왕), 차남 진정갈문왕 백반, 그리고 3남 진안갈문왕 국반을 낳았다. 다음은 숙흥종인데 숙흥종은 임종갈문왕(지소태후의 남편, 진흥왕의 아버지)과 금진낭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만호는 숙흥종과 함께 딸 만명공주 김 씨를 낳았다. 이 만명이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과

야합을 하여 김유신과 태종무열왕(김춘추)의 비 문명왕후 등을 낳았다. 그리고 정숙태자(진흥왕과 숙명공주의 아들)와의 사이에서 딸 만룡낭주를 낳았다. 이렇게 엮혀진 만호와 자식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진골정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소태후는 진흥왕의 비 사도왕후(대원신통이다)를 폐하고 자신의 딸 숙명공주를 혼인시켜 왕비로 들이려했다. 사도의 아들 금륜(후에 진지왕)과 지소의 딸 만호와와의 관계, 만호의 딸 만룡이 미실의 딸 애함을 따돌리고 보리공의 부인이 된 점 등이다.

물론 단순히 사랑에 빠져 인통姻通을 저버린 예외도 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만명이다. 만명은 만호의 딸이며 숙흥종과 관계하여 낳았다. 만명은 진골정통이면서 김서현과 야합을 했다. 처음에 어머니 만호는 반대하였지만 그들의 사랑을 식힐 수 없었고, 마침내 신라의 대영결 김유신이 태어났다. 다소 복잡하게 얽힌 혼인이고 남편관계이지만 신국 신라에서 '골骨' 을 유지하기 위한 인맥姻脈의 형성이었다. 그래서 화랑세기 내용을 깊게 연구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 상당히 난삽하고 혼란스러운 성관계가 엮혀있지만, 여성(진골정통이든 대원신통이든...)들의 혼인이나 사통私通은 엄연히 '색공色供'과 '색사色事'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색공은 남성의 신분에 따라 골

을 유지하기 위한 인맥姻脈이었고, 색사는 남자의 신분과 별 상관없는 관계의 행위임을 볼 수 있다. 일례로 금진낭주를 보면 어린나이에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법흥왕이 죽은 뒤에는 출궁되었다. 출궁의 이유는 아마도 소생이 없었기에 출궁을 당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자신을 모시면서 5년간이나 사모했던 구리지와 가정을 이루어 토함과 새달 그리고 사다함을 낳았다. 그리고 남편 구리지가 독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는 신분이 대단히 아래인 구리지의 용양신 설성과 가정을 꾸렸다. 그 신분관계로 인하여 효성이 지극한 사다함으로부터도 성설은 의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금진마저도 다른 아들들(토함, 숙흥종 - 임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로 부터 색녀로 취급되었다. 설성과 가정을 꾸려 설원랑을 낳기 전에는 잠시 궁궐에 유모로 들어와 있을 때는 진흥왕과의 사이에서 난성공주를 낳기도 하였다. 금진의 색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들 사다함의 친구이자 부하인 미천한 신분의 무관랑을 침실로 끌어들여 결국 무관랑과 사다함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무료입장



토요일

2017년 2월 4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설날 행사

MFA 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세요. 이 날 하루 각국의 전통 예술, 각종 활동과 문화체험 및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org/lunar

Presented in partnership with Boston Chinatown Neighborhood Center,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KID4D, and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Boston Chinatown Neighborhood Center
波士頓華埠社區中心
bostonccncc.org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CHINESE CULTURE CONNECTION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다음은?'

드디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특징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양성(Diversity)과 수용(Inclusion)을 몸소 실천하며 복지국가, 복지제도를 베풀어주는 나라였다. 서로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왔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 미국시민이 되었고,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수있는 생의 기회를 쥐어주는 미국에서 감사하며 살았다. 인종과 성별을 떠나 D/I(Diversity/Inclusion: 다양성/수용)가 기반을 이루어 서로 서로 '하 나가 되자!'는 나라였다.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D/I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기업, 학교 등 주요한 요소에 열린 생각을 대변하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제도를 여러 다른 인종에게 베풀며 미국의 위상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열린나라' 미국이 변하려 한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을 뒤흔들어 놓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미국시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의 대통령 취임연설에는 암울한 미국의 상황들을 부각시키고, 범죄적인 상황 등 경제적 곤란,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안전의 중요성과 경제적 수익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트럼프 자신이 미국이 처한 이러한 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세상이 매우 어둡게 느껴지고, 마치 트럼프만이 이 어둠을 없애줄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가 주는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 댓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을 '탈리오의 법칙' 혹은 '복수법'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미국의 뿌리에 있는 크리스챤니티, 가톨릭의 '자비와 용서'의 법칙과 매우 다른 양상이 있다.

그래서 인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층이 선명한 두개의 그룹으로 드러난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Make America First)'의 메시지를 미국인들은 동의하지 않는 그룹과 열광적인 지지를 하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그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안에는 '명령과 복종', '예와 아니요', '비난(Blaming)과 죄의식(Guilty)'의 블랙이나 화이트나는 두가지 선택만을 중용하는 메시지로 지식층이나 열린마음의 미국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은 소수민족의 우월성에 불만이 가득했던 중산층의 미국백인들이 많다. 그들은 트럼프의 타협없는 저돌적인 추진력에 속 시원함마저 느낀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임무가 시작되자마자, 그가 주장했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탈퇴, 멕시코 장벽,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출생시민제도폐지',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낙태금지', '송유관 건설' 등을 감행하는 법에 싸인을 하였다. 그는 미국이 다시 옛날의 '부'와 '권력'을 갖기위해서라면 뭐든지 안 할것은 없다는 살벌하고 명백한 방향의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는것이다.

정신 분석가인 도널드 위니키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포용하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나무를 건 강하게 자라게 하기위해서는 자양분이 많은 토양, 충분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 물과 햇빛을 알맞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 보살핌, 사랑이 필요한것이다. 만약 살고있는 환경이 토양, 물, 햇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되었다고 위협을 느끼면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심, 보살핌, 사랑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부', '안전 보호'가 우선이 된다. 트럼프의 공약의 말 속에 우리는 토양, 물, 햇빛을 다른 나라에게 나눌만큼 충족하지 않다. 그러니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생존을 위해 우리것을 철저히 지키고,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하며, 무력과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주었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매일 같이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고 있다.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은 매우 자극적인 힘과 짜릿한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의 공약이 매우 타당

하고 정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다. 트럼프의 말에는 복수가 주는 쾌감이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복이 따를 공표한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약소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마치 미국의 정치관이 '돈'과 '권력'만을 움켜쥐려는 독재주의가 되는 현상이다.

자유와 상장이었던 미국의 환경이 갑자기 통제와 보복의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고 있다. 영화배우 메릴 스트리프(Meryl Streep)는 골든그로브 시상식에서 세실 B. 데밀(Cecil B. DeMille)상을 받았다. 그때 그녀의 수상소감에 이러한 말이 있다. "올해도 연기를 통해 강력한 감명을 주는 영화들이 많았다. 그중 영화처럼 나를 놀라게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기자를 흉내를 낼 때 청중들이 이를 드러내며 웃는 장면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특권, 권력을 갖고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에 맞서 싸울 수없는 장애의 기자를 자신의 힘으로 굴욕을 주는 것이었고 청중은 같이 아우였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 부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대중 앞에서 약자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본능을 드러내면 대중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를 주는 것과 같기때문이다. 무례는 무례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그녀의 말처럼 반 이민정책이 통과되면서 여기저기 트럼프 정부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나고있다. 어젯밤, 1천 5백명의 UC 버클리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수석 편집장 '밀로야노 폴로스'의 강연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필자는 이를 지켜보며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며 대학가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대모'가 생각났다.

지난주 피터의 어머니는 긴급 세션을 요청했다. 피터가 트럼프의 취임식을 본 후 더욱 불안감에 빠졌고 보스톤에서 거행된 'Women's March'에 어머니가 참여 할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터의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는 시위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의 장소에 혼자 가는것, 또한 여성권리를 그렇게 까지 항의를 해야하나하는 생각에 참여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터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갑자기 패닉어택의 상태에 빠졌고, 숨이 가빠지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옮겨졌다. 중국의 공산주의 환경에서 자라난 피터의 부모는 트럼프의 공약에 반발하는 미국 시민들의 그룹이 잘 이해가 안 갔다. 단지, 보호무역주의 탈퇴와 극렬하게 중국을 위협하는 트럼프로 인해 중국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피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환경 D/I(Diversity/Inclusion :다양성/수용)를 접하며 자라났다. 피터의 부모는 중국에서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피터는 중국문화의 보수적인 부모와 많은 갈등을 느끼며 더욱 중국문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터는 외동 아들로 부모의 넘치는 관심을 받고 자랐고, 영재소리들으며 영재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피터가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학교 공부가 힘들어 지고 테라피와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한것은 9학년 중반부터였다.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에서 성장한 피터의 부모님은 '명령과 복종', '예와 아니요'의 두가지 선택에 길들여져 있었고, 많은 선택이 가능한 미국의 환경에서 자란 피터는 그의 부모의 강요되어진 복종에 반항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은 절대 시인하지 않고, 피터에게 죄책감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부모에게 증오마저 느끼게 했다. 피터는 자비가아닌 권력의 힘으로 '미국 우선'의 환경에 불안감이 더해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자비는 자비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야기한다. 불안이 조장되어 명령과 복종만이 통하는 환경안에서 피터와 같이 불안에 떠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 질 것이다. 필자는 두 손을 모아 기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더 많은 복수, 위협과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기를...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복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이크 트럭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Honda, Acura, Audi, Toyota)
- Tansky Toyota 근무(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ld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TV MBC SBS tvN Mnet Olive OCN STORY LINE DaStyle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1)

기본적인 상속준비

사랑하는 사람과 몇십 년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배우자, 특히 아내는 남편이 관리했던 금융자산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트러스트(Trus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봐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언제나 '그렇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계획을 의논하면 트러스트를 형성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만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상속 지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상속수혜자(Beneficiary Designation):

상속계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언장, 트러스트,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가 제대로

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하면 생활비 대부분이 은퇴자산에서 나오므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목돈은 금융자산일 것입니다. 금융자산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수혜자 표시로 금융자산이 상속됩니다. 유언장에 어떻게 명시되었건 상관없이 상속수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자산이 먼저 분배됩니다. 상속수혜자 설정이 유언장을 우선하기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장(Will):

유언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을 엑시큐터(Executor)라고 말합니다. 유언장은 죽은 사람의 여러 유품을 누구에게 준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언급하는 지시는 프로베이트(Probate) 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트러스트(Trust):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자산이 옮겨지는 장

소(Legal Entity)를 뜻합니다. 트러스트란 죽은 후에 금융자산 등을 어떠한 식으로 분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문서입니다. 트러스트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라고 합니다.

한 예로 남아 있는 두 자식에게 각 50% 자산을 분배한다고 상속수혜자로 명시했으면 이러한 식으로 자산이 분배됩니다. 그러나 한 자식이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가정하면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상속받는 아이에게 일정한 액수를 매년 사용하라는 조건 등을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이에 따라 상속된 자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시한 조건을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자산 전체를 운용해야 하기에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은 필수입니다. 현재 제대로 하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트러스트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형성하기 전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어

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 결정 변호사(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or Medical Directive):

자동차 사고 등으로 목숨은 살아있지만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계획을 말할 때 상속세금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7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5.49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두 배인 \$10.98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투자자 대부분이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계획을 몇 년 전에 형성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은퇴한 후 다른 주 정부(State)로 이사하면 현재 사는 주의 상속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의 상속세가 연방정부와 다를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1)

- 나도 세금신고해야 하나?

'금년도 소득이 별로 안되는데...세금신고해야 하나요?'

'학생인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소득이 조금 있는데...아들이 별도로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아들이 별도로 신고하면 저는 아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못 받나요?'

1. Who MUST file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각종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아래의 IRS 'Publication 501'의 'Table1. 2016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납세자를 보면,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인 경우는 총소득(gross income)이 \$20,700,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총소득이 \$21,950, 그리고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총소득이 \$23,25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인적공제금액(Exemption)과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의 합계

IF your filing status is...	AND at the end of 2016 you were...*	THEN file a return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single	under 65	\$10,350
	65 or older	\$11,900
head of household	under 65	\$13,350
	65 or older	\$14,90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0,700
	65 or older (one spouse)	\$21,950
	65 or older (both spouses)	\$23,2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4,05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under 65	\$16,650
	65 or older	\$17,900

더Table 1. 2016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

액으로, 사실상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부부합산신고하는 납세자 중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이면 기준금액이 \$20,700인데 이는 부부합산신고자의 인적공제금액(\$8,100 = \$4,050X2명)과 표준공제액(\$12,600 : 둘다 65세 미만이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20,700 이하인 부부합산신고자는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나이 그리고 시각장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IRS 'Publication 501'의 'Table 2. 2016 Filing Requirements for Dependent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의 부양가족대상자로서 65세 미

만이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의 경우, 소득이 아래의 3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양가족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Unearned income(이자, 배당 등)이 \$1,050초과

② 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6,300초과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래 둘 중 큰 금액을 초과

a)\$1,050

b)본인의 Earned income(\$5,950한도) + \$350

따라서 대학생 아들이 부모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여 부모가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받았더라도 아들의 소득이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들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런데 납세자의 총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야하는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400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미리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IRS 'Publication 501'의 Table 3. Other Situations When You Must File a 2016 Retur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Who SHOULD file

소득이 위 1.Who MUST file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는 기준금액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급여 수령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며, 자녀세액추가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교육비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신고를 안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나 기타 환급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MW LEE, CPA P.C.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회계·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간접 경험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양국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2월 첫째주)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

지난주 이민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90일 미국 입국금지 명령은 인권문제, 위헌 문제 등 많은 문제점 안고 있고 국내외 전반적인 사회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문제는 이번 행정 명령의 내용과 강도를 통해 앞으로 더 광범위한 반이민적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소문일 뿐 하나도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행정명령은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국내외의 심한 반발이 지속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무리를 해서 제2, 3의 반이민 행정 명령을 밀어부칠 사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가지는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명령으로 많은 언론들이 좀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마치 영주권자들도 이제는 미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지난 주 화요일 한국의 YTN

은 하와이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한국인 영주권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 영주권자는 한국을 방문하고 LA를 통해 입국할 때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입국 심사를 받았고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앞으로 영주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앞으로 영주권자도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이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약 7개월간 머물다가 입국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민심사관의 발언이 좀 과하긴 했지만 7개월간의 해외 방문을 하고 입국하는 영주권자를 2차심사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허다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좀 과하게 행동하는 심사관이 있기는 때문에 당분간은 영주권자도 입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고되는 사항들 중 하나는 2차심사를 하며 입국을 허락하면서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2차 심사를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피심사자가 서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권 포기서인 form I-407를 들이대고 여

기에 서명하면 입국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서류인지 모르고 입국을 허가한다니 서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H 비자를 비롯한 대대적인 반 이민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비자를 없애고 영주권 신청의 조건들을 바꾸는 것은 지난주 행정 명령과 다르게 행정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국회에 H 비자와 관련된 개정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도 H 비자를 없애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몇몇 언론들은 H의 최저임금을 \$60,000에서 \$100,000로 인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보도입니다. 모든 H의 최저임금을 \$60,000에서 \$100,000로 인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60,000이라는 최저 임금은 없습니다. 현행법 상, 한 직책의 임금이 \$60,000 이상이면 회사/고용인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할 임금지불 보장을 예외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금액을 \$100,000로 올

려달라는 것입니다. 일반 H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가짜 H 신청서들을 숨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니 이번 개정안에 통과 되면 오히려 일반 H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H와 관련된 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인도 계열인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도인들이 가짜 또는 중복 H 신청서들을 보내 선의의 H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H 비자에 대한 Update가 나오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서들도 취소되거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들입니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전과 다름없이 영주권 승인이 되고 있고 신청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대부분 약소국가들을 상대로 행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무슬림이 미국에 반하는 존재라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무슬림의 중심국가는 왜 이번 조치에서 빠졌을까요? 한두달 정도 더 관망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도가 보일 듯 합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과 관련된 IT 직종 바로 다음으로 직종별 H-1B 승인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회계년도에 승인된 직업군별 노동조건신청서(LCA) 중 상위 65.2%를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 비율이 8.3%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교육학, 공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H-1B가 성공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

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Job Title)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에 달려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자들께서 H-1B를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경력이 없이 최근에 경영학 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하신 분들일 경우 주로 Business Analysts, Business Operations Specialists, Financial Analysts, Management Analysts, Operations Research Analysts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경영 관련 학위와 더불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기업의 매니저급으로 입사할 수 있다면 General/Operations/Financial Managers 등의 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보직은 H-1B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신청 외국인이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 없이 H-1B가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5년 사이 전문직에 대한 심

사가 까다로워지면서 Management Analysts와 Operations Research Analyst 등의 보직으로 H-1B를 신청할 경우, 해당 보직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입증을 요구하는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RFE) 발급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야가 나뉘어져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더 자주 나타납니다. 즉, 경영학 전공자로서 관련 직종에 취업한더라도 무조건적인 H-1B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는 경영학 전공자의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 H-1B 준비 단계에서부터 스폰서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사의 조직도 분석과 해당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직분석표(Job Description)와 회사 등을 준비하여 해당 직원이 최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경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폰서 회사의 규모나 사

업 특성에 따라 해당 직원에 최적화된 보직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파이낸스나 회계학 관련 수업 등을 수강했고 회사 내에 예산 관련 분석업무가 필요할 경우 “Budget Analysts”는 흔히들 생각하지 않는 보직이지만 경영학 전공자에게 고려해볼 만한 보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H-1B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서류요청 발급시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NAVER

H-1B 법률 칼럼



You Tube

송동호 종합로펌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풀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I,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04A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04A,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